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2. 22.(화) 12:00	 통계청 서울특별시 통계정보관리과
	배포일시	2020. 12. 22.(화)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과장: 강유경(042-481-2233) 사무관: 이필영(042-481-2237)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는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 육아휴직통계는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새롭게 개발한 국가승인통계입니다.
- ☐ 본 통계는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11종)를 연계·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로 공표합니다.
 - 수록된 2019년 수치는 잠정치(p)이며, 1년 후 확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잠정치는 확정치보다 항상 작게 집계되오니, 추세 분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 육아휴직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각 지표의 정의는 부록의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제도 >

(2019년 기준)

구 분	근로자	공무원
근 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대 상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공무원
자 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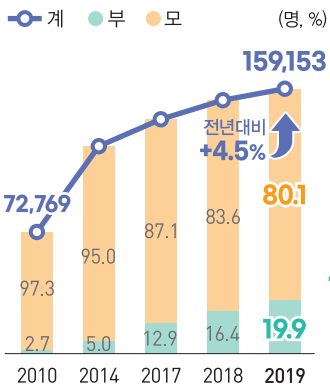
* 근로자의 세부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근로기준법)

-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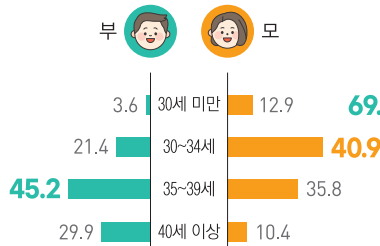


2019년 육아휴직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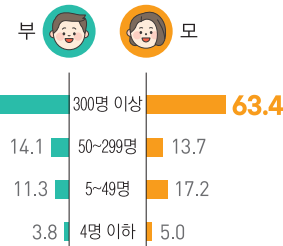
전체 육아휴직자 수 (시작일 기준)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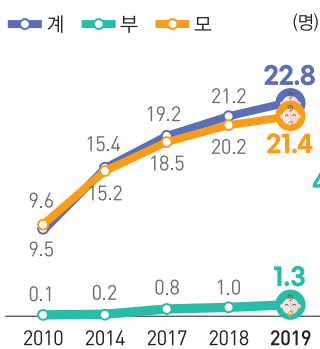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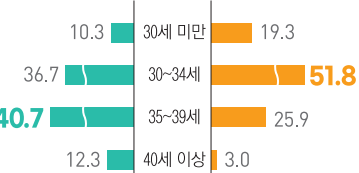
산업대분류별(5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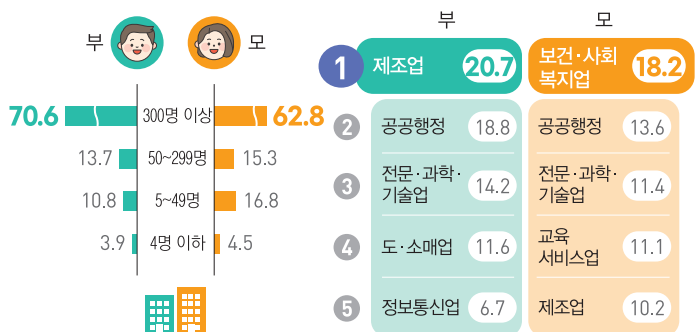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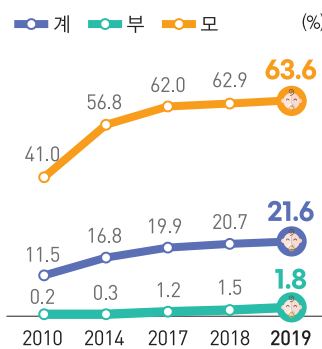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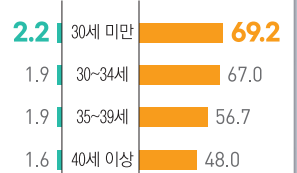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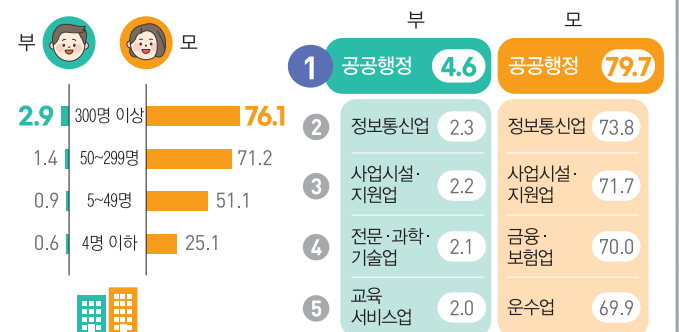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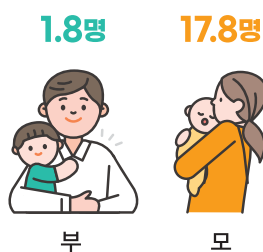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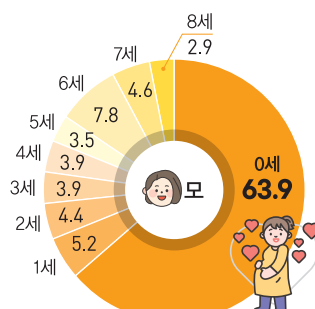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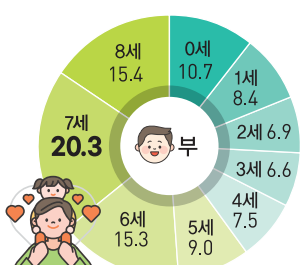


2010년 출생아 대상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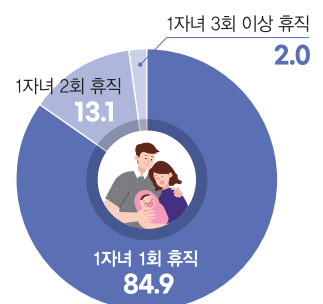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수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



육아휴직 분할사용 현황(%)



목 차

□ 2019년 육아휴직통계(요약)	1
--------------------------	---

□ 2019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수(시작일기준)

가. 수준 및 추세	3
나. 연령별 분석	4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5
라. 종사 산업별 분석	6

2.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가. 수준 및 추세	7
나. 연령별 분석	8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9
라. 종사 산업별 분석	10

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가. 수준 및 추세	11
나. 연령별 분석	12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13
라. 종사 산업별 분석	14

4.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가. 수준 및 추세	15
나. 연령별 분석	16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17
라. 종사 산업별 분석	18

5.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수

19

6.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21

□ 통계표

22

◇ 부록(육아휴직통계 관련 Q&A)

46

Q1.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46
------------------------	----

Q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활용도	48
-------------------------------------	----

Q3. '전체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의 의미	49
--	----

Q4.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육아휴직자 수를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	49
---	----

Q5. 육아휴직 대상자 요건	50
-----------------------	----

Q6. 각 지표별 특성 분석 기준시점	51
----------------------------	----

Q7. 잠·확정 체계 채택 이유	52
-------------------------	----

Q8. 육아휴직 실태 현실 반영도	53
--------------------------	----

Q9. 관련 통계	53
-----------------	----

Q10. 국외 사례	54
------------------	----

2019년 육아휴직통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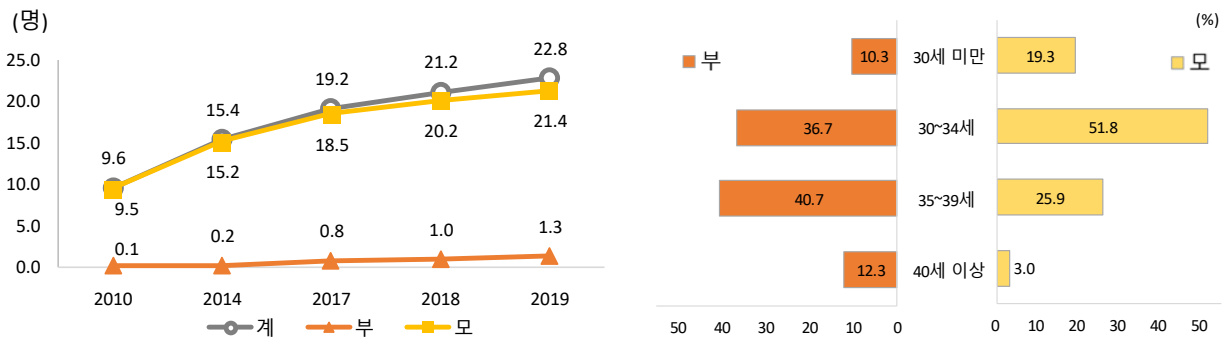
'19년 육아휴직자 수(시작일 기준)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5만 9,153명

- '19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4.5%(6,912명) 증가한 15만 9,153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2.2배 수준임
- '19년 육아휴직자 15만 9,153명 중 부(父)가 19.9%, 모(母)가 80.1%를 차지하고 '10년 대비 부(父)는 16.1배 증가, 모(母)는 1.8배 증가함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22.8명

-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22.8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2.4배 수준임
- '19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수는 전년 대비 0.3명 증가한 1.3명이고, 모(母)의 수는 전년 대비 1.2명 증가한 21.4명임
- 부(父)는 35~39세(40.7%), 모(母)는 30~34세(51.8%)가 가장 많음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및 연령별 구성비 >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63.3%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부(父)는 제조업에, 모(母)는 보건·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종사 산업 상위 5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부	제조업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	20.7	18.8	14.2	11.6	6.7
모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	18.2	13.6	11.4	11.1	10.2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2.8명 증가한 105.4명

-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2.8명 증가한 105.4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1.3배 수준임
- ‘19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수는 71.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증가하였고, 모(母)의 수는 33.7명으로 전년 대비 1.6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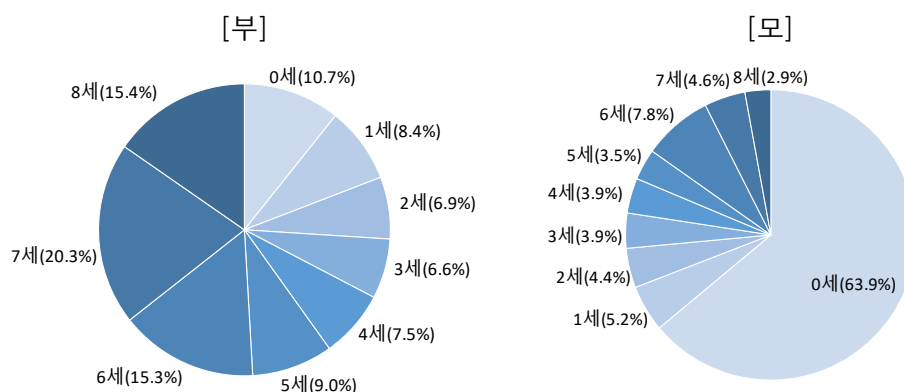
‘19년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1.6%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 비중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21.6%로 9년 전인 ‘10년 대비 약 1.9배 수준임
- ‘19년 출생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1.8%이고,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63.6%임

‘10년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수는 19.6명

- ‘10년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수는 19.6명이고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한 부(父)의 수는 1.8명, 모(母)의 수는 17.8명임
- ‘10년 출생아 대상 전 기간 육아휴직 분할 사용현황을 보면 1회 휴직이 전체의 84.9%로 가장 많음
- ‘10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부모 중 아이가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한 부모는 59.6%로 가장 많고, 다음은 만 6세(8.4%), 만 7세(5.8%) 등의 순임

<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 >



<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 >

(단위: %)

출생연도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0 ^p	계	100.0	59.6	5.4	4.6	4.1	4.2	3.9	8.4	5.8	3.9
	부	100.0	10.7	8.4	6.9	6.6	7.5	9.0	15.3	20.3	15.4
	모	100.0	63.9	5.2	4.4	3.9	3.9	3.5	7.8	4.6	2.9

‘19년 출산일 기준 취업상태인 母는 41.7%로 출산 360일 전보다 10.1%p 감소

2019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수(시작일 기준)

가. 수준 및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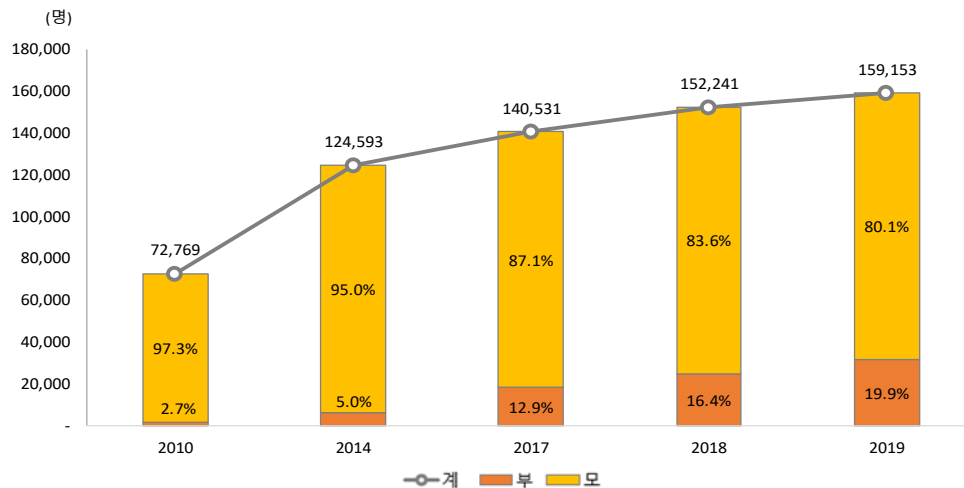
‘19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5만 9,153명임

- ‘19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4.5%(6,912명) 증가한 15만 9,153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2.2배 수준임

* ‘18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19년까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등 제외

- 육아휴직자 15만 9,153명 중 부(父)가 19.9%, 모(母)가 80.1%임
- 특히, 부(父)의 육아휴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10년 대비 16.1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모(母)는 ‘10년 대비 1.8배 수준으로 증가함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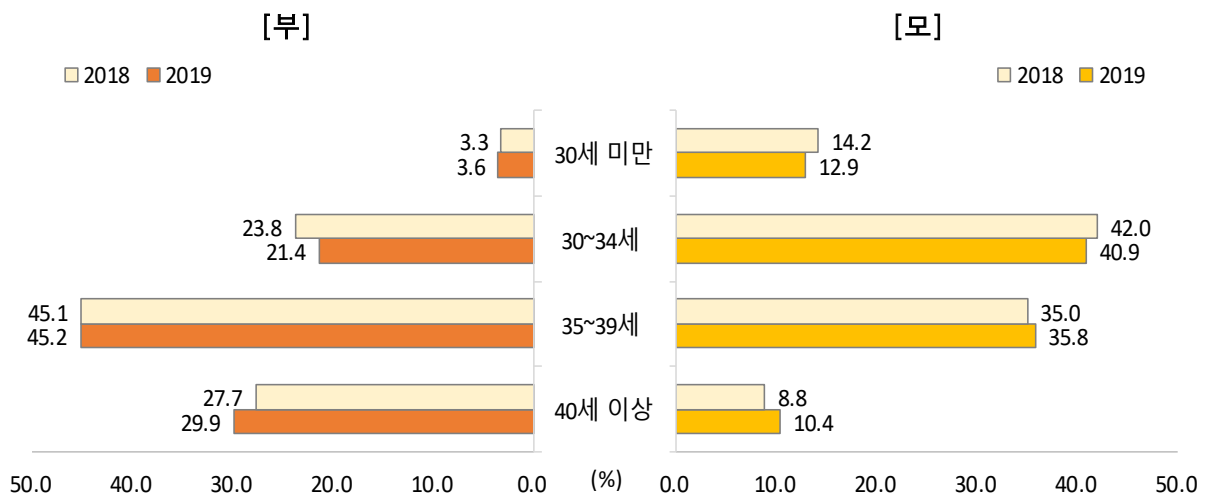
	2010	2014	2017	2018	2019 ^p	증감률	증감('19-'18)
전체 육아휴직자	72,769	124,593	140,531	152,241	159,153	4.5	6,912
부	1,962	6,213	18,126	24,987	31,665	26.7	6,678
(구 성 비)	2.7	5.0	12.9	16.4	19.9	-	3.5
모	70,807	118,380	122,405	127,254	127,488	0.2	234
(구 성 비)	97.3	95.0	87.1	83.6	80.1	-	-3.5

나. 연령별 분석

부(父)는 35~39세(45.2%), 모(母)는 30~34세(40.9%)가 가장 많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45.2%)와 40세 이상(29.9%)이 75.0%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3.6%로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2.2%p 증가하였고, 30~34세의 비중은 2.4%p 감소하였음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0~34세(40.9%)와 35~39세(35.8%)가 76.7%를 차지하고, 40세 이상은 10.4%로 가장 낮음
 - 특히 40세 이상과 35~3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6%p, 0.8%p 증가하였고, 30세 미만과 30~34세는 각각 1.3%p, 1.1%p 감소하였음

< 전체 육아휴직자__연령별 분석 >



< 전체 육아휴직자__연령별 분석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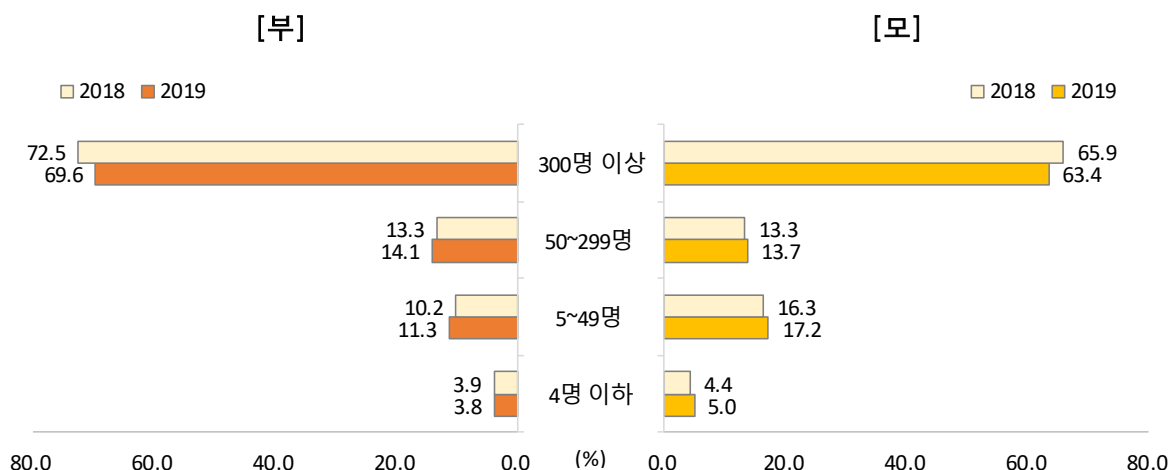
	2018		2019 ^P		증감('19-'18)	
	부	모	부	모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3.3	14.2	3.6	12.9	0.3	-1.3
30~34세	23.8	42.0	21.4	40.9	-2.4	-1.1
35~39세	45.1	35.0	45.2	35.8	0.1	0.8
40세 이상	27.7	8.8	29.9	10.4	2.2	1.6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육아휴직자의 약 65%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69.6%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며,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경우는 3.8%로 낮음
 - 종사자 규모 5~49명, 50~299명 규모의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63.4%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17.2%는 종사자 규모가 5~49명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며,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경우는 5.0%임
 -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전체 육아휴직자__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 전체 육아휴직자__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단위: %, %p)

	2018		2019 ^P		증감('19-'18)	
	부	모	부	모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72.5	65.9	69.6	63.4	-2.9	-2.5
50~299명	13.3	13.3	14.1	13.7	0.8	0.4
5~49명	10.2	16.3	11.3	17.2	1.1	0.9
4명 이하	3.9	4.4	3.8	5.0	-0.1	0.6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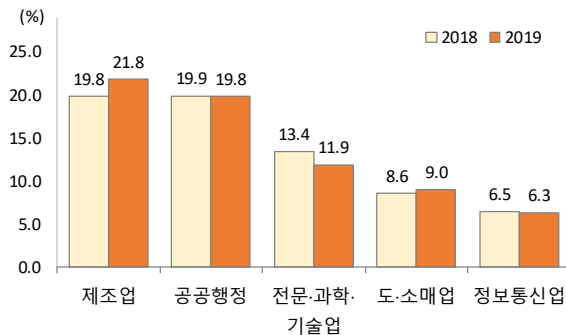
라. 종사 산업별 분석

부(父)는 제조업에, 모(母)는 보건·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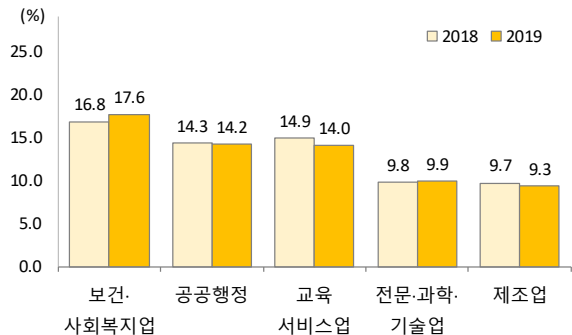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53.5%가 제조업, 공공행정 또는 전문·과학·기술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모(母)의 45.8%가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순위는 제조업(21.8%), 공공행정(19.8%), 전문·과학·기술업(11.9%), 도·소매업(9.0%), 정보통신업(6.3%) 등의 순임
- 육아휴직을 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순위는 보건·사회복지업(17.6%), 공공행정(14.2%), 교육서비스업(14.0%), 전문·과학·기술업(9.9%), 제조업(9.3%) 등의 순임

< 전체 육아휴직자__종사 산업별 분석 >

[부]



[모]



< 전체 육아휴직자__종사 산업별 분석 >

(단위: %)

	부				모			
	2018	구성비	2019 ^P	구성비	2018	구성비	2019 ^P	구성비
1순위	O. 공공행정	19.9	C. 제조업	21.8	Q 보건·사회복지업	16.8	Q 보건·사회복지업	17.6
2순위	C. 제조업	19.8	O. 공공행정	19.8	P. 교육서비스업	14.9	O. 공공행정	14.2
3순위	M. 전문·과학·기술업	13.4	M. 전문·과학·기술업	11.9	O. 공공행정	14.3	P. 교육서비스업	14.0
4순위	G. 도·소매업	8.6	G. 도·소매업	9.0	M. 전문·과학·기술업	9.8	M. 전문·과학·기술업	9.9
5순위	J. 정보통신업	6.5	J. 정보통신업	6.3	C. 제조업	9.7	C. 제조업	9.3

2.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가. 수준 및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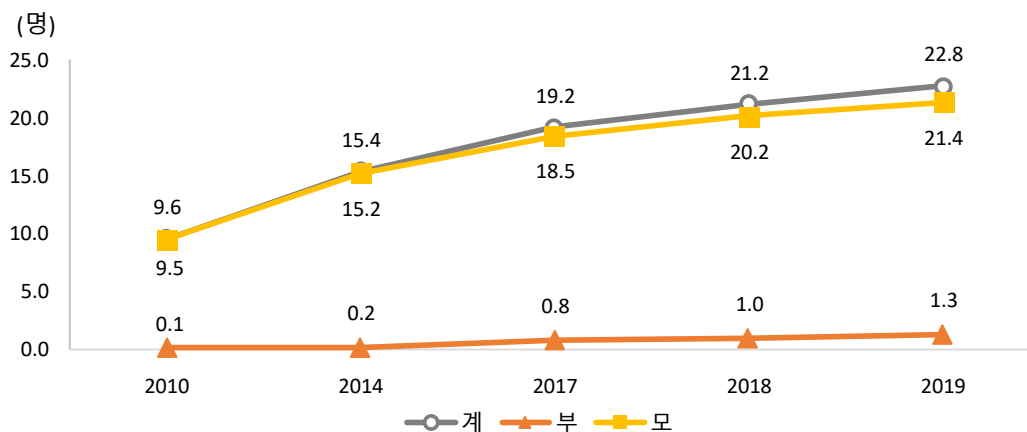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22.8명임

□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22.8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2.4배 수준임

○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수는 전년 대비 0.3명 증가한 1.3명이고, 모(母)의 수는 전년 대비 1.2명 증가한 21.4명임

○ 특히 부(父)의 경우 '10년 대비 1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모(母)는 2.3배 수준으로 증가함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

(단위: 명)

	2010	2014	2017	2018	2019 ^P	증감('19-'18)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A/B*100)	9.6	15.4	19.2	21.2	22.8	1.6
부	0.1	0.2	0.8	1.0	1.3	0.3
모	9.5	15.2	18.5	20.2	21.4	1.2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A=C+D)	45,182	67,114	68,794	69,304	68,863	-441
부(C)	493	877	2,774	3,412	4,012	600
모(D)	44,689	66,237	66,020	65,892	64,851	-1,041
부 & 모	126	312	1,358	1,782	2,182	400
출 생 아(B)	470,171	435,435	357,771	326,822	302,676	-24,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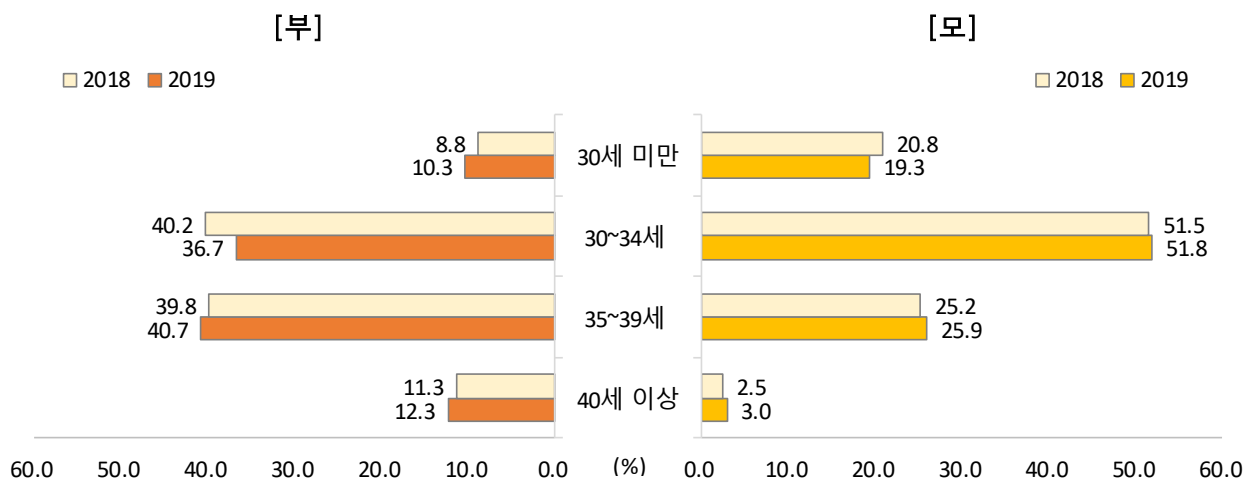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계)의 이론적 최댓값은 200명

나. 연령별 분석

부(父)는 35~39세(40.7%), 모(母)는 30~34세(51.8%)가 가장 많음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40.7%)와 30~34세(36.7%)가 77.4%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이 10.3%로 가장 낮음
 - 특히 3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3.5%p 감소하고 다른 연령대는 증가함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0~34세(51.8%)와 35~39세(25.9%)가 77.7%를 차지하고, 40세 이상이 3.0%로 가장 낮음
 - 특히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1.5%p 감소하고 다른 연령대는 증가함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자__연령별 분석 >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자__연령별 분석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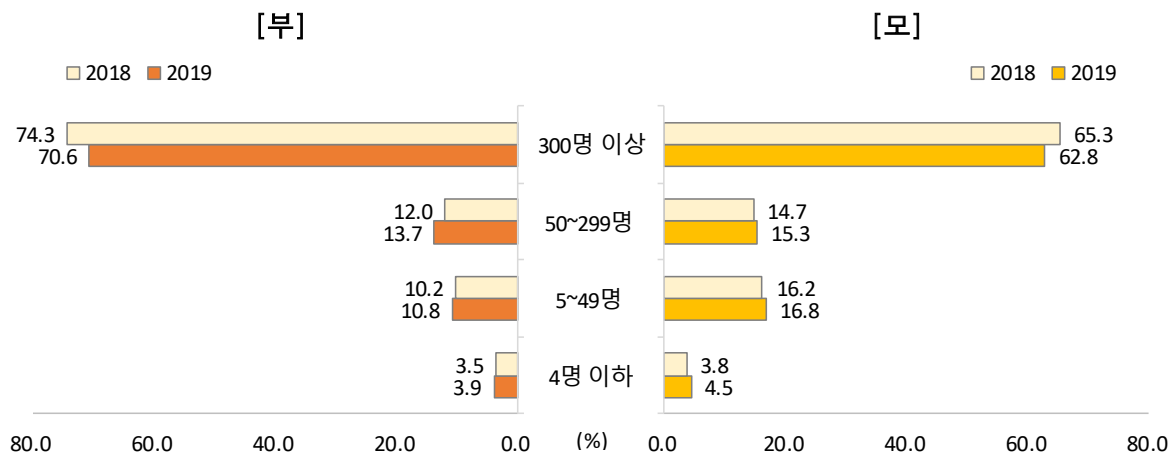
	2018		2019 ^P		증감('19-'18)	
	부	모	부	모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8.8	20.8	10.3	19.3	1.5	-1.5
30~34세	40.2	51.5	36.7	51.8	-3.5	0.3
35~39세	39.8	25.2	40.7	25.9	0.9	0.7
40세 이상	11.3	2.5	12.3	3.0	1.0	0.5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63.3%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70.6%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며,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경우는 3.9%로 가장 낮음
 -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전년 대비 3.7%p 감소함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62.8%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며,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경우는 4.5%로 가장 낮음
 -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전년 대비 2.5%p 감소함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자__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자__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단위: %, %p)

	2018		2019 ^P		증감('19-'18)	
	부	모	부	모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74.3	65.3	70.6	62.8	-3.7	-2.5
50~299명	12.0	14.7	13.7	15.3	1.7	0.6
5~49명	10.2	16.2	10.8	16.8	0.6	0.6
4명 이하	3.5	3.8	3.9	4.5	0.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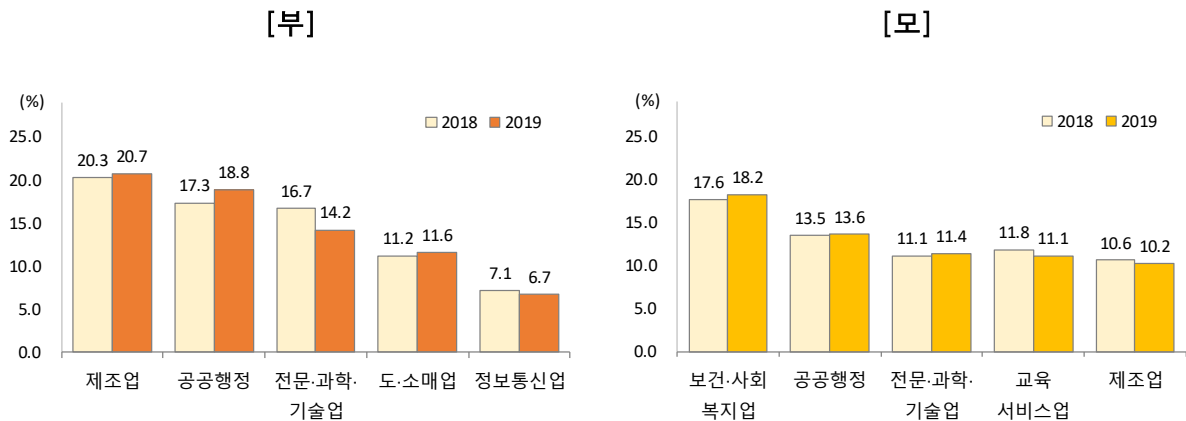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분석

부(父)는 제조업에, 모(母)는 보건·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20.7%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공공행정(18.8%), 전문·과학·기술업(14.2%), 도·소매업(11.6%), 정보통신업(6.7%) 등의 순임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을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공공행정(13.6%), 전문·과학·기술업(11.4%), 교육서비스업(11.1%), 제조업(10.2%) 등의 순임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자__종사 산업별 분석 >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자__종사 산업별 분석 >

(단위: %)

	부				모			
	2018	구성비	2019 ^P	구성비	2018	구성비	2019 ^P	구성비
1순위	C. 제조업	20.3	C. 제조업	20.7	Q 보건·사회복지업	17.6	Q 보건·사회복지업	18.2
2순위	O. 공공행정	17.3	O. 공공행정	18.8	O. 공공행정	13.5	O. 공공행정	13.6
3순위	M. 전문·과학·기술업	16.7	M. 전문·과학·기술업	14.2	P. 교육서비스업	11.8	M. 전문·과학·기술업	11.4
4순위	G. 도·소매업	11.2	G. 도·소매업	11.6	M. 전문·과학·기술업	11.1	P. 교육서비스업	11.1
5순위	J. 정보통신업	7.1	J. 정보통신업	6.7	C. 제조업	10.6	C. 제조업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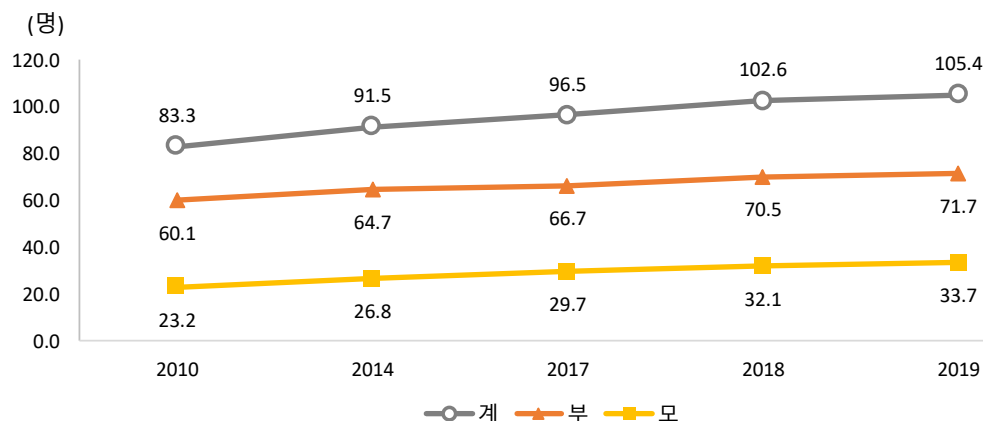
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가. 수준 및 추세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2.8명 증가한 105.4명임

-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2.8명 증가한 105.4명으로 9년 전인 '10년과 비교하면 약 1.3배 수준임
-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수는 71.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증가하였고, 9년 전인 '10년 대비 11.6명 증가함
-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의 수는 33.7명으로 전년 대비 1.6명 증가하였고, 9년 전인 '10년 대비 10.5명 증가함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

(단위: 명)

	2010	2014	2017	2018	2019 ^P	증감('19-'18)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A/B*100)	83.3	91.5	96.5	102.6	105.4	2.8
부	60.1	64.7	66.7	70.5	71.7	1.2
모	23.2	26.8	29.7	32.1	33.7	1.6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A)	391,546	398,366	345,147	335,241	319,101	-16,140
부	282,652	281,800	238,728	230,431	217,144	-13,287
모	108,894	116,566	106,419	104,810	101,957	-2,853
출 생 아 (B)	470,171	435,435	357,771	326,822	302,676	-24,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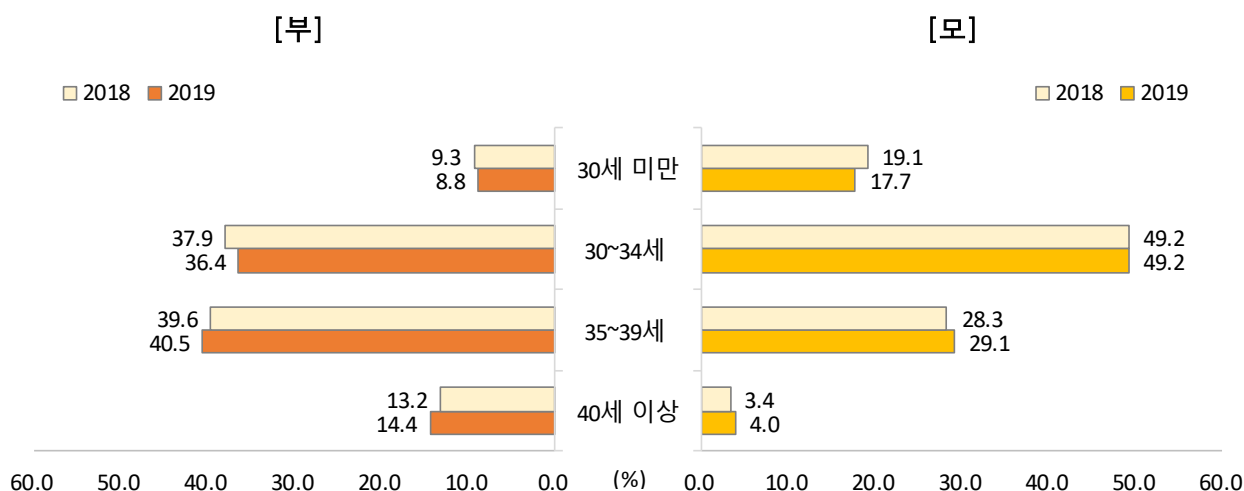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계)의 이론적 최댓값은 200명

나. 연령별 분석

부(父)는 35~39세(40.5%), 모(母)는 30~34세(49.2%)로 가장 높음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40.5%)와 30~34세(36.4%)에서 76.9%를 차지함
 - 3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2.0%p 증가함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0~34세(49.2%)와 35~39세(29.1%)에서 78.3%를 차지함
 - 3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1.4%p 증가함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__연령별 분석 >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__연령별 분석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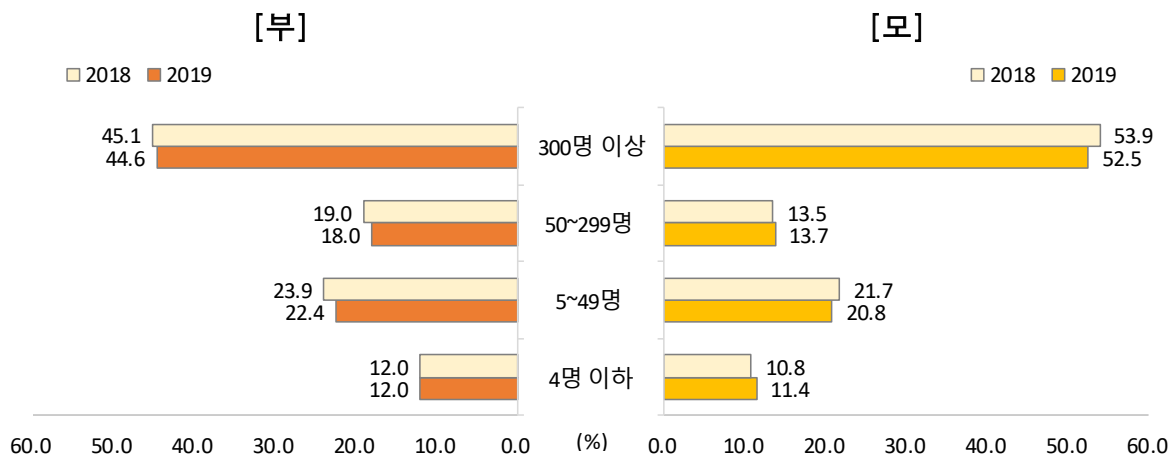
	2018		2019 ^P		증감('19-'18)	
	부	모	부	모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9.3	19.1	8.8	17.7	-0.5	-1.4
30~34세	37.9	49.2	36.4	49.2	-1.5	0.0
35~39세	39.6	28.3	40.5	29.1	0.9	0.8
40세 이상	13.2	3.4	14.4	4.0	1.2	0.6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부모의 50.4%가 종사자 규모 300명 미만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부(父)의 52.5%가 종사자 규모 300명 미만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종사자 규모 5명 이상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4명 이하 기업은 전년 대비 보합상태를 유지함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모(母)의 45.9%가 종사자 규모 300명 미만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종사자 규모 50~299명, 4명 이하 규모의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__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__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단위: %, %p)

	2018		2019 ^P		증감('19-'18)	
	부	모	부	모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45.1	53.9	44.6	52.5	-0.5	-1.4
50~299명	19.0	13.5	18.0	13.7	-1.0	0.2
5~49명	23.9	21.7	22.4	20.8	-1.5	-0.9
4명 이하	12.0	10.8	12.0	11.4	0.0	0.6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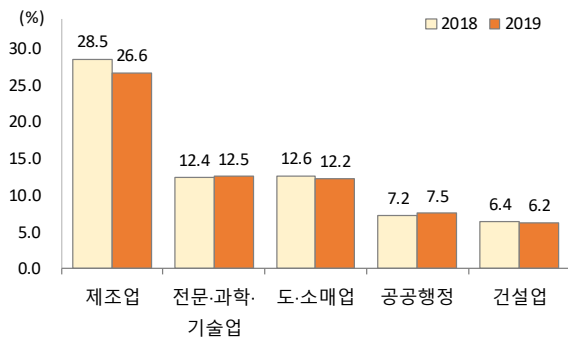
라. 종사 산업별 분석

부(父)는 제조업(26.6%)에, 모(母)는 보건·사회복지업(16.8%)에 가장 많이 종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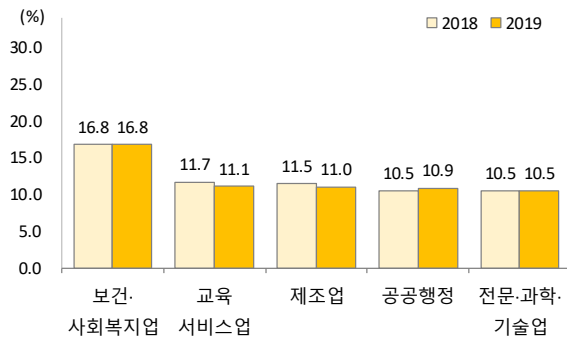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문·과학·기술업(12.5%), 도·소매업(12.2%), 공공행정(7.5%) 등의 순임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을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6.8%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교육서비스업(11.1%), 제조업(11.0%), 공공행정(10.9%) 등의 순임

< 출생아 대상 육아휴직 대상자__종사 산업별 분석 >

[부]



[모]



< 출생아 대상 육아휴직 대상자__종사 산업별 분석 >

(단위: %)

	부				모			
	2018	구성비	2019 ^P	구성비	2018	구성비	2019 ^P	구성비
1순위	C. 제조업	28.5	C. 제조업	26.6	Q 보건·사회복지업	16.8	Q 보건·사회복지업	16.8
2순위	G. 도·소매업	12.6	M. 전문·과학·기술업	12.5	P. 교육서비스업	11.7	P. 교육서비스업	11.1
3순위	M. 전문·과학·기술업	12.4	G. 도·소매업	12.2	C. 제조업	11.5	C. 제조업	11.0
4순위	O. 공공행정	7.2	O. 공공행정	7.5	O. 공공행정	10.5	O. 공공행정	10.9
5순위	F. 건설업	6.4	F. 건설업	6.2	M. 전문·과학·기술업	10.5	M. 전문·과학·기술업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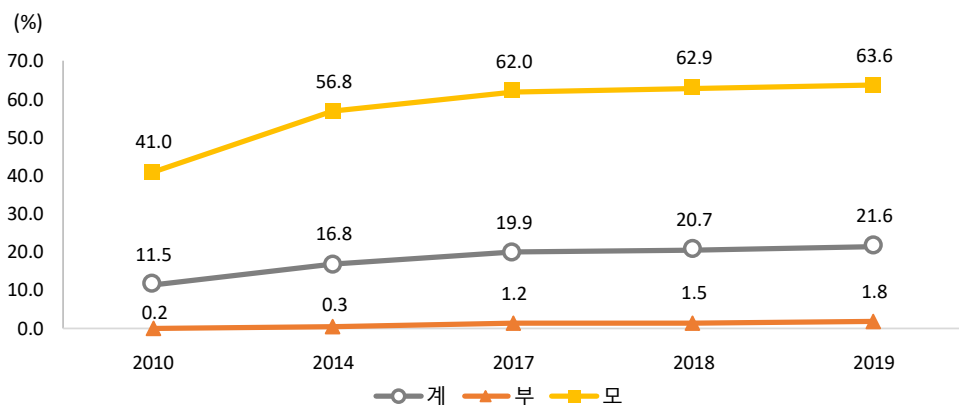
4.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가. 수준 및 추세

‘19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21.6%임

- ‘19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 비중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21.6%로 9년 전인 ‘10년 대비 약 1.9배 수준임
- ‘19년 출생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1.8%로 ‘10년 0.2% 대비 9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19년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63.6%로 ‘10년 41.0% 대비 약 1.6배 수준임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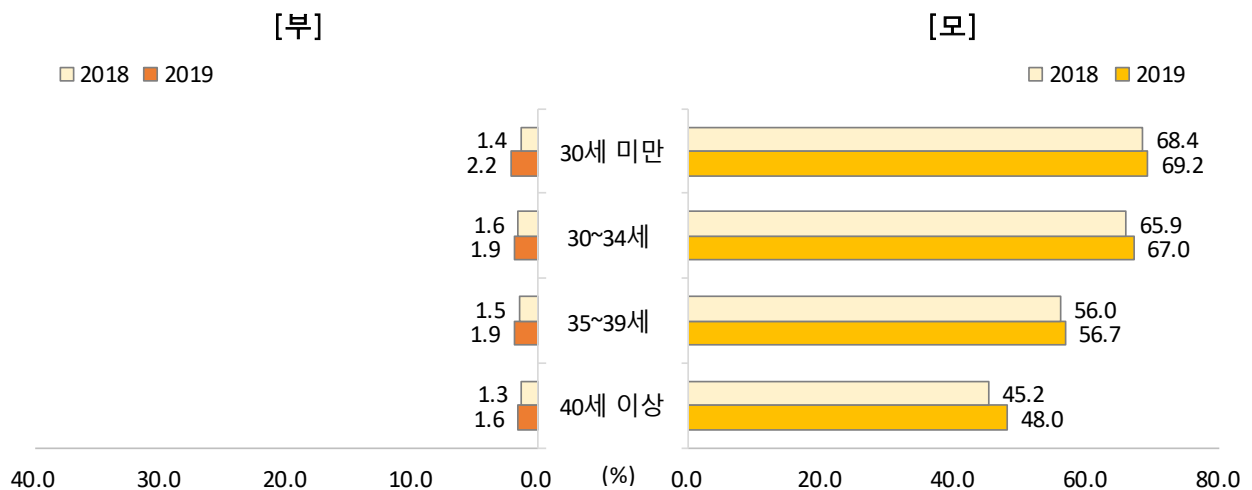
	2010	2014	2017	2018	2019 ^P	증감률	증감('19-'18)
육아휴직 사용률 (A/B*100)	11.5	16.8	19.9	20.7	21.6	4.3	0.9
부	0.2	0.3	1.2	1.5	1.8	20.0	0.3
모	41.0	56.8	62.0	62.9	63.6	1.1	0.7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A)	45,182	67,114	68,794	69,304	68,863	-0.6	-441
부	493	877	2,774	3,412	4,012	17.6	600
모	44,689	66,237	66,020	65,892	64,851	-1.6	-1,041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B)	391,546	398,366	345,147	335,241	319,101	-4.8	-16,140
부	282,652	281,800	238,728	230,431	217,144	-5.8	-13,287
모	108,894	116,566	106,419	104,810	101,957	-2.7	-2,853

나. 연령별 분석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모 모두 30세 미만이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가장 낮음

- '19년 출생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2%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1.6%로 가장 낮음
 -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0.3%p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 30세 미만에서 0.8%p로 가장 크게 증가함
- '19년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69.2%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48.0%로 가장 낮음
 -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0.7%p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 40세 이상에서 2.8%p로 가장 크게 증가함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__연령별 분석>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__연령별 분석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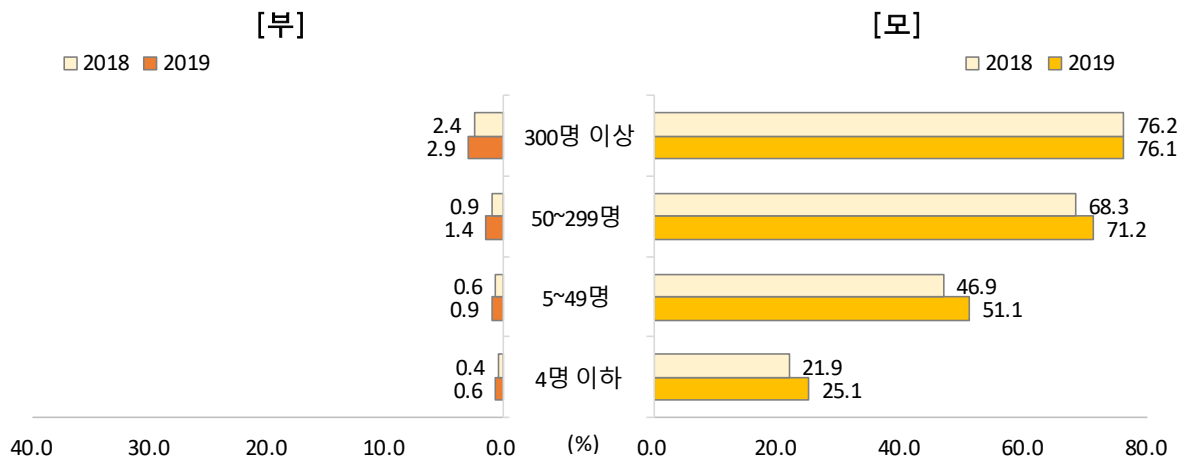
	2018		2019 ^P		증감('19-'18)	
	부	모	부	모	부	모
계	1.5	62.9	1.8	63.6	0.3	0.7
30세 미만	1.4	68.4	2.2	69.2	0.8	0.8
30~34세	1.6	65.9	1.9	67.0	0.3	1.1
35~39세	1.5	56.0	1.9	56.7	0.4	0.7
40세 이상	1.3	45.2	1.6	48.0	0.3	2.8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부모 모두 가장 높음

- '19년 출생아 부(父)가 소속된 기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이 2.9%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이 0.6%로 가장 낮음
 - 기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0.2%p 이상 증가함
- '19년 출생아 모(母)가 소속된 기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이 76.1%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이 25.1%로 가장 낮음
 -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에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규모에서는 모두 증가함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__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__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단위: %, %p)

	2018		2019 ^P		증감('19-'18)	
	부	모	부	모	부	모
계*	1.5	62.9	1.8	63.6	0.3	0.7
300명 이상	2.4	76.2	2.9	76.1	0.5	-0.1
50~299명	0.9	68.3	1.4	71.2	0.5	2.9
5~49명	0.6	46.9	0.9	51.1	0.3	4.2
4명 이하	0.4	21.9	0.6	25.1	0.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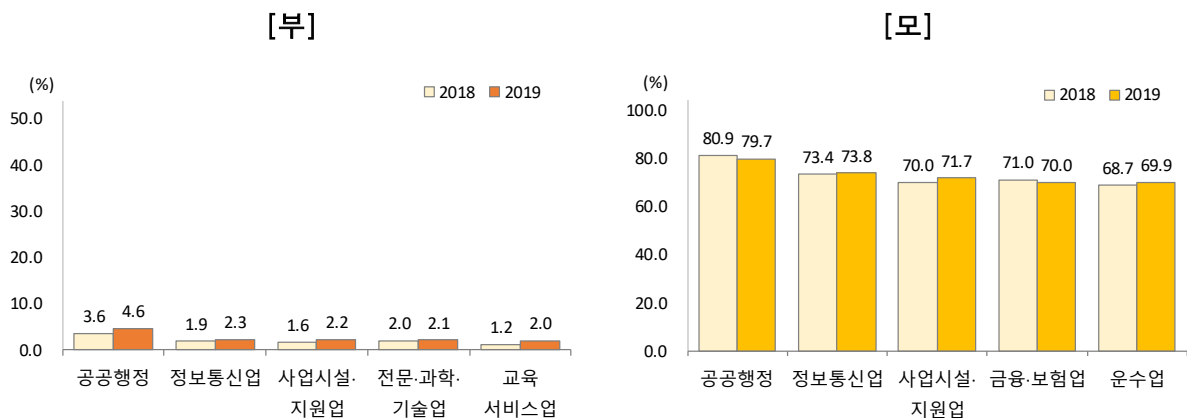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분석

‘19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공행정 부문에서 가장 높음

- ‘19년 출생아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공공행정이 4.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정보통신업(2.3%), 사업시설·지원업(2.2%), 전문·과학·기술업(2.1%), 교육서비스업(2.0%) 등의 순임
- ‘19년 출생아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공공행정이 79.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정보통신업(73.8%), 사업시설·지원업(71.7%), 금융·보험업(70.0%), 운수업(69.9%) 등의 순임
- 공공행정 부문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년에 이어 부모 모두 가장 높고, 상위 5순위 안에 해당하는 산업분야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나 5순위 내에서의 순위 변동은 있음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__종사 산업별 분석 >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__종사 산업별 분석 >

(단위: %)

	부				모			
	2018	사용률	2019 ^P	사용률	2018	사용률	2019 ^P	사용률
1순위	O. 공공행정	3.6	O. 공공행정	4.6	O. 공공행정	80.9	O. 공공행정	79.7
2순위	M. 전문·과학·기술업	2.0	J. 정보통신업	2.3	J. 정보통신업	73.4	J. 정보통신업	73.8
3순위	J. 정보통신업	1.9	N. 사업시설·지원업	2.2	K. 금융·보험업	71.0	N. 사업시설·지원업	71.7
4순위	N. 사업시설·지원업	1.6	M. 전문·과학·기술업	2.1	N. 사업시설·지원업	70.0	K. 금융·보험업	70.0
5순위	H. 운수업	1.6	P. 교육서비스업	2.0	H. 운수업	68.7	H. 운수업	69.9

5.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수

‘10년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수는 19.6명임

- ‘10년 출생아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부모 수는 출생아 100명당 19.6명임
- ‘10년 출생아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한 부(父)의 수는 1.8명이고, 모(母)의 수는 17.8명임

<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

(단위: 명)

출생연도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A/B*100)			출생아 부모 중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A)			출생아 수(B)
	계	부	모	계	부	모	
2010 ^P	19.6	1.8	17.8	92,131	8,301	83,830	470,171

- ‘10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육아휴직을 한 부모 중 아이가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한 부모는 59.6%로 가장 많고, 다음은 만 6세(8.4%), 만 7세(5.8%) 등의 순임
- 부(父)는 자녀 취학 시기인 만 7세(20.3%), 만 8세(15.4%), 만 6세(15.3%) 때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편임
- 모(母)는 약 70%가 자녀가 만 1세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하고, 그 후 자녀 취학 시기인 만 6세(7.8%), 만 7세(4.6%)일 때 많이 함

<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 >

(단위: %)

출생연도	성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0 ^P	계	100.0	59.6	5.4	4.6	4.1	4.2	3.9	8.4	5.8	3.9
	부	100.0	10.7	8.4	6.9	6.6	7.5	9.0	15.3	20.3	15.4
	모	100.0	63.9	5.2	4.4	3.9	3.9	3.5	7.8	4.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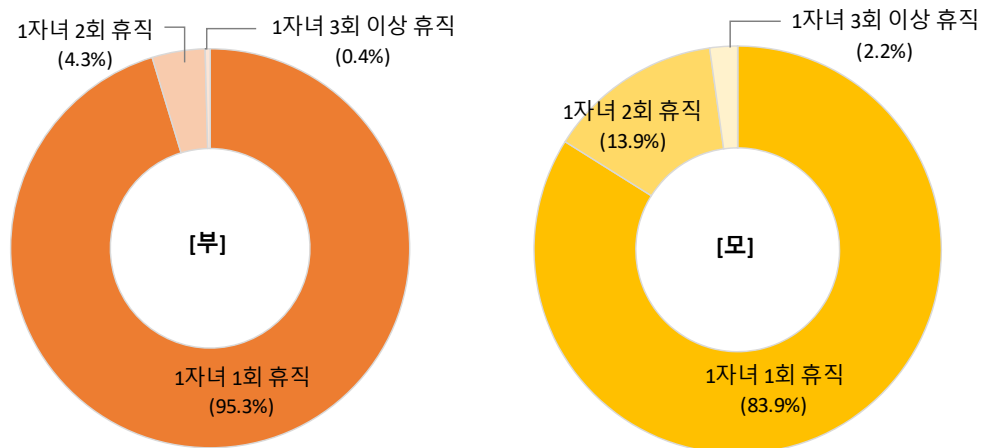
‘10년 출생아 대상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1자녀 1회 휴직이 84.9%로 가장 많음

□ ‘10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1회 휴직을 한 경우가 전체의 84.9%, 2회 휴직을 한 경우가 13.1%, 3회 이상 휴직한 경우가 2.0%임

○ 부(父)의 경우, 1회 휴직한 경우가 95.3%, 2회 휴직한 경우가 4.3%, 3회 이상 휴직한 경우가 0.4%임

○ 모(母)의 경우, 1회 휴직한 경우가 83.9%, 2회 휴직한 경우가 13.9%, 3회 이상 휴직한 경우가 2.2%임

< 육아휴직 분할사용 현황(전 기간) >



< 육아휴직 분할사용 현황(전 기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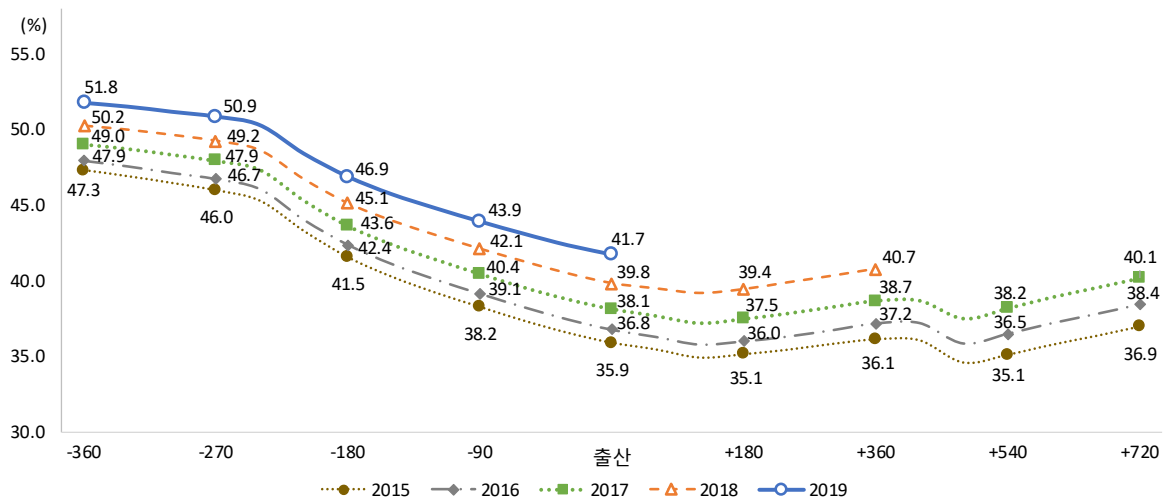
출생 연도	성별	휴직사용 계	1자녀 1회 휴직 (미분할)	1자녀 2회 휴직 (1회 분할)	1자녀 3회 이상 휴직 (2회 이상 분할)
2010 ^P	계	100.0	84.9	13.1	2.0
	부	100.0	95.3	4.3	0.4
	모	100.0	83.9	13.9	2.2

6.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19년 출산모의 41.7%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산 360일 전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10.1%p 감소함

- ‘19년 출산모의 41.7%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산 360일 전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10.1%p 감소함
- 출산모의 출산일 기준 직업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15~‘17년 출산모의 출산 전·후 취업비중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 출산 전 360일부터 직업 보유 비중이 계속 낮아지다가 출산 후 90~120일부터 서서히 증가 후, 390~420일 사이에 다시 감소하고 480일 이후부터 다시 증가함
 - 출산 후 약 2년이 지나면 출산일 당시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보다 1~2%p 높은 수준으로 회복됨

<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



<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

(단위: %, %p)

	출산 전				출산일	출산 후			
	-360일	-270일	-180일	-90일		+180일	+360일	+540일	+720일
2015	47.3	46.0	41.5	38.2	35.9	35.1	36.1	35.1	36.9
증감	0.8	0.9	0.9	1.0	1.1	1.5	1.6	1.9	2.0
2016	47.9	46.7	42.4	39.1	36.8	36.0	37.2	36.5	38.4
증감	0.6	0.7	0.9	0.9	0.9	0.9	1.1	1.4	1.5
2017	49.0	47.9	43.6	40.4	38.1	37.5	38.7	38.2	40.1
증감	1.1	1.2	1.2	1.3	1.3	1.5	1.5	1.7	1.7
2018 ^P	50.2	49.2	45.1	42.1	39.8	39.4	40.7	-	-
증감	1.2	1.3	1.5	1.7	1.7	1.9	2.0	-	-
2019 ^P	51.8	50.9	46.9	43.9	41.7	-	-	-	-
증감	1.6	1.7	1.8	1.8	1.9	-	-	-	-

통 계 표

1. 전체 육아휴직자 수(시작일 기준)	24
1-1. 연령별 구성비	25
1-2.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26
1-3. 산업대분류별 구성비	27
2.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28
2-1.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29
2-2. 연령별 구성비	30
2-3.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31
2-4. 산업대분류별 구성비	32
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33
3-1.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34
3-2. 연령별 구성비	35
3-3.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36
3-4. 산업대분류별 구성비	37
4.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38
4-1.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39
4-2.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40
4-3. 산업대분류별 육아휴직 사용률	41
5.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42
5-1. 출생아 부모 중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42
5-2. 육아휴직 분할사용 현황(전 기간)	43
5-3.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	43
6.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44

1. 전체 육아휴직자 수(시작일 기준)

단위(명)

	계	부	모
2010	72,769	1,962	70,807
2011	93,859	3,039	90,820
2012	105,072	3,680	101,392
2013	110,615	4,478	106,137
2014	124,593	6,213	118,380
2015	135,459	8,197	127,262
2016	139,071	11,930	127,141
2017	140,531	18,126	122,405
2018	152,241	24,987	127,254
2019 ^P	159,153	31,665	127,488

1-1. 연령별 구성비(전체 육아휴직자)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0 >					
계	100.0	32.1	51.7	14.5	1.7
부	100.0	7.8	37.4	40.6	14.2
모	100.0	32.8	52.1	13.7	1.3
< 2011 >					
계	100.0	27.5	53.8	16.4	2.4
부	100.0	5.8	34.3	42.1	17.8
모	100.0	28.2	54.4	15.5	1.9
< 2012 >					
계	100.0	23.9	54.7	18.5	2.9
부	100.0	4.6	33.3	42.1	19.9
모	100.0	24.6	55.5	17.6	2.3
< 2013 >					
계	100.0	20.1	55.3	21.0	3.6
부	100.0	4.4	31.6	42.4	21.5
모	100.0	20.7	56.3	20.1	2.8
< 2014 >					
계	100.0	17.5	52.5	24.8	5.2
부	100.0	3.0	29.4	42.2	25.5
모	100.0	18.2	53.7	23.9	4.2
< 2015 >					
계	100.0	16.5	49.5	27.7	6.3
부	100.0	3.4	27.0	42.4	27.2
모	100.0	17.4	50.9	26.7	5.0
< 2016 >					
계	100.0	15.3	46.6	30.6	7.6
부	100.0	3.2	27.2	43.7	26.0
모	100.0	16.4	48.4	29.3	5.8
< 2017 >					
계	100.0	14.0	42.6	34.0	9.5
부	100.0	3.4	25.5	44.6	26.5
모	100.0	15.5	45.1	32.4	7.0
< 2018 >					
계	100.0	12.4	39.0	36.6	11.9
부	100.0	3.3	23.8	45.1	27.7
모	100.0	14.2	42.0	35.0	8.8
< 2019 ^P >					
계	100.0	11.0	37.0	37.7	14.3
부	100.0	3.6	21.4	45.2	29.9
모	100.0	12.9	40.9	35.8	10.4

1-2.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전체 육아휴직자)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0 >						
계	100.0	66.4	9.8	16.2	5.6	1.9
부	100.0	66.8	10.3	14.6	5.7	2.6
모	100.0	66.4	9.8	16.3	5.6	1.9
< 2011 >						
계	100.0	65.8	10.3	16.7	5.4	1.9
부	100.0	70.1	9.7	13.4	4.3	2.6
모	100.0	65.6	10.3	16.8	5.5	1.8
< 2012 >						
계	100.0	67.6	10.8	15.4	4.9	1.3
부	100.0	72.3	9.7	11.4	4.7	1.9
모	100.0	67.5	10.8	15.6	4.9	1.3
< 2013 >						
계	100.0	68.4	11.1	14.6	4.3	1.6
부	100.0	73.7	9.8	10.6	4.3	1.6
모	100.0	68.2	11.2	14.7	4.3	1.6
< 2014 >						
계	100.0	68.7	11.6	14.5	3.9	1.3
부	100.0	72.8	10.7	11.0	3.8	1.6
모	100.0	68.5	11.6	14.7	3.9	1.2
< 2015 >						
계	100.0	67.8	12.3	15.2	4.4	0.2
부	100.0	72.5	12.5	10.8	3.9	0.2
모	100.0	67.5	12.3	15.5	4.5	0.2
< 2016 >						
계	100.0	68.5	12.4	14.7	4.2	0.1
부	100.0	73.3	12.1	10.1	4.5	0.1
모	100.0	68.1	12.4	15.2	4.2	0.1
< 2017 >						
계	100.0	67.9	13.0	14.8	4.2	0.1
부	100.0	73.6	12.3	9.9	4.1	0.1
모	100.0	67.1	13.1	15.5	4.3	0.1
< 2018 >						
계	100.0	67.0	13.3	15.3	4.3	0.1
부	100.0	72.5	13.3	10.2	3.9	0.2
모	100.0	65.9	13.3	16.3	4.4	0.1
< 2019 ^P >						
계	100.0	64.6	13.8	16.0	4.7	0.8
부	100.0	69.6	14.1	11.3	3.8	1.1
모	100.0	63.4	13.7	17.2	5.0	0.8

1-3. 산업대분류별 구성비(전체 육아휴직자)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 2010 >														
계	100.0	10.7	2.2	6.2	2.4	1.2	4.0	10.4	6.2	5.9	14.8	17.0	12.9	6.0
부	100.0	11.9	3.3	5.2	3.2	1.0	7.2	1.7	8.5	2.9	35.0	9.4	1.5	9.2
모	100.0	10.7	2.1	6.2	2.4	1.2	3.9	10.7	6.1	6.0	14.2	17.3	13.3	6.0
< 2011 >														
계	100.0	8.7	2.1	6.0	2.3	0.9	4.6	9.5	7.4	5.1	15.0	18.8	13.8	5.9
부	100.0	10.1	2.6	5.2	3.9	0.8	8.7	2.5	9.3	3.0	34.2	9.5	1.7	8.5
모	100.0	8.7	2.1	6.0	2.2	0.9	4.5	9.7	7.4	5.1	14.3	19.1	14.2	5.9
< 2012 >														
계	100.0	12.0	1.8	6.1	2.3	0.9	4.4	10.0	6.4	5.6	15.2	16.0	13.8	5.5
부	100.0	11.8	2.7	5.1	3.7	1.2	7.1	2.7	9.0	2.7	34.4	8.9	1.8	8.9
모	100.0	12.1	1.8	6.1	2.2	0.8	4.3	10.2	6.3	5.7	14.5	16.3	14.2	5.3
< 2013 >														
계	100.0	9.7	1.7	5.7	2.3	0.9	4.4	9.7	9.3	5.4	15.3	16.2	13.9	5.4
부	100.0	10.7	2.7	4.8	4.1	0.8	7.6	3.0	13.1	3.8	31.7	8.1	1.7	7.8
모	100.0	9.7	1.6	5.7	2.2	0.9	4.2	10.0	9.2	5.5	14.7	16.6	14.4	5.3
< 2014 >														
계	100.0	9.8	1.5	6.0	2.5	1.1	4.4	9.5	9.4	5.7	14.7	15.3	15.2	4.8
부	100.0	13.1	2.7	5.5	4.4	1.3	6.8	3.3	12.9	3.7	29.0	7.3	2.4	7.7
모	100.0	9.6	1.5	6.1	2.4	1.0	4.3	9.8	9.2	5.8	14.0	15.8	15.9	4.7
< 2015 >														
계	100.0	12.3	1.7	6.9	2.4	0.9	4.7	9.6	7.7	5.5	14.7	15.0	15.0	3.8
부	100.0	17.2	3.1	6.3	3.8	1.2	8.6	3.6	9.7	3.7	26.6	7.3	2.7	6.4
모	100.0	12.0	1.7	6.9	2.3	0.8	4.5	10.0	7.5	5.6	13.9	15.5	15.7	3.6
< 2016 >														
계	100.0	10.5	2.0	7.0	2.3	0.9	4.5	9.4	9.6	5.5	14.9	14.9	14.9	3.6
부	100.0	16.7	7.8	7.6	3.2	1.1	7.4	3.4	11.2	4.1	22.9	6.1	2.7	6.0
모	100.0	9.9	1.5	6.9	2.2	0.9	4.2	10.0	9.4	5.6	14.1	15.7	16.0	3.4
< 2017 >														
계	100.0	12.9	1.8	7.4	2.3	1.0	4.6	8.7	8.8	5.3	15.2	14.1	14.4	3.6
부	100.0	25.5	4.0	8.0	3.2	1.4	6.2	3.4	11.6	3.6	20.0	5.6	2.4	5.0
모	100.0	11.0	1.4	7.3	2.1	0.9	4.3	9.5	8.4	5.6	14.5	15.4	16.1	3.4
< 2018 >														
계	100.0	11.4	1.9	7.6	2.4	1.1	4.6	8.1	10.3	5.2	15.2	13.5	14.4	4.1
부	100.0	19.8	4.7	8.6	3.9	1.3	6.5	3.5	13.4	4.0	19.9	6.0	2.5	5.9
모	100.0	9.7	1.4	7.4	2.2	1.0	4.2	9.0	9.8	5.5	14.3	14.9	16.8	3.8
< 2019 ^P >														
계	100.0	11.8	1.9	8.1	2.5	1.1	4.5	7.4	10.3	5.2	15.3	12.3	14.6	4.9
부	100.0	21.8	3.3	9.0	4.0	1.3	6.3	3.4	11.9	4.3	19.8	5.5	2.7	6.8
모	100.0	9.3	1.5	7.9	2.2	1.1	4.1	8.4	9.9	5.4	14.2	14.0	17.6	4.5

* 기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2.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2010	9.6	0.1	9.5
2011	11.7	0.1	11.5
2012	12.9	0.1	12.7
2013	14.2	0.2	14.1
2014	15.4	0.2	15.2
2015	16.7	0.2	16.5
2016	17.7	0.3	17.4
2017	19.2	0.8	18.5
2018	21.2	1.0	20.2
2019 ^P	22.8	1.3	21.4

2-1.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출생아 수
				부&모**	
2010	45,182	493	44,689	126	470,171
2011	54,923	652	54,271	168	471,265
2012	62,430	693	61,737	224	484,550
2013	62,110	751	61,359	272	436,455
2014	67,114	877	66,237	312	435,435
2015	73,348	1,084	72,264	416	438,420
2016	71,969	1,421	70,548	658	406,243
2017	68,794	2,774	66,020	1,358	357,771
2018	69,304	3,412	65,892	1,782	326,822
2019 ^P	68,863	4,012	64,851	2,182	302,676

* '계'는 '부'와 '모'의 합임

** '부&모'는 당해연도에 부와 모 모두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를 집계한 것임

2-2. 연령별 구성비(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0 >					
계	100.0	37.3	50.7	11.1	0.9
부	100.0	12.2	43.4	36.3	8.1
모	100.0	37.6	50.7	10.9	0.8
< 2011 >					
계	100.0	33.6	53.2	12.1	1.1
부	100.0	11.0	43.7	35.0	10.3
모	100.0	33.9	53.3	11.8	1.0
< 2012 >					
계	100.0	29.9	56.0	13.0	1.1
부	100.0	9.5	45.9	36.4	8.2
모	100.0	30.1	56.1	12.8	1.1
< 2013 >					
계	100.0	26.1	57.9	14.6	1.4
부	100.0	9.1	44.6	36.9	9.5
모	100.0	26.3	58.1	14.4	1.3
< 2014 >					
계	100.0	24.0	58.5	16.0	1.5
부	100.0	8.0	46.4	34.5	11.1
모	100.0	24.3	58.6	15.8	1.3
< 2015 >					
계	100.0	23.8	56.4	18.1	1.8
부	100.0	9.2	42.7	37.0	11.1
모	100.0	24.0	56.6	17.8	1.6
< 2016 >					
계	100.0	22.5	55.0	20.4	2.1
부	100.0	9.0	43.8	35.8	11.4
모	100.0	22.8	55.2	20.1	1.9
< 2017 >					
계	100.0	21.8	52.1	23.7	2.4
부	100.0	9.2	42.3	38.1	10.4
모	100.0	22.3	52.5	23.1	2.1
< 2018 >					
계	100.0	20.2	51.0	25.9	2.9
부	100.0	8.8	40.2	39.8	11.3
모	100.0	20.8	51.5	25.2	2.5
< 2019 ^P >					
계	100.0	18.7	50.9	26.8	3.6
부	100.0	10.3	36.7	40.7	12.3
모	100.0	19.3	51.8	25.9	3.0

2-3.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0 >						
계	100.0	65.5	10.2	17.6	6.2	0.5
부	100.0	56.8	12.8	19.5	10.8	0.2
모	100.0	65.5	10.2	17.6	6.1	0.5
< 2011 >						
계	100.0	64.5	10.9	18.3	6.0	0.3
부	100.0	62.4	11.5	17.8	8.0	0.3
모	100.0	64.6	10.9	18.3	6.0	0.3
< 2012 >						
계	100.0	66.5	11.6	16.8	5.1	0.1
부	100.0	65.9	10.5	16.2	7.4	-
모	100.0	66.5	11.6	16.8	5.0	0.1
< 2013 >						
계	100.0	67.5	11.9	15.6	4.5	0.4
부	100.0	68.0	10.3	14.9	6.8	-
모	100.0	67.5	12.0	15.7	4.5	0.4
< 2014 >						
계	100.0	67.4	12.8	15.6	4.1	0.2
부	100.0	68.1	12.9	13.9	5.1	-
모	100.0	67.4	12.8	15.6	4.0	0.2
< 2015 >						
계	100.0	66.8	13.5	15.5	4.0	0.2
부	100.0	66.1	14.9	13.1	5.5	0.4
모	100.0	66.8	13.5	15.5	4.0	0.2
< 2016 >						
계	100.0	67.1	13.7	15.2	3.9	0.1
부	100.0	68.3	13.7	11.8	5.6	0.5
모	100.0	67.1	13.6	15.2	3.9	0.1
< 2017 >						
계	100.0	66.7	14.2	15.4	3.7	0.1
부	100.0	74.4	10.5	11.0	3.7	0.4
모	100.0	66.3	14.3	15.5	3.7	0.1
< 2018 >						
계	100.0	65.8	14.5	15.9	3.7	0.1
부	100.0	74.3	12.0	10.2	3.5	0.1
모	100.0	65.3	14.7	16.2	3.8	0.1
< 2019 ^P >						
계	100.0	63.3	15.2	16.4	4.4	0.7
부	100.0	70.6	13.7	10.8	3.9	0.9
모	100.0	62.8	15.3	16.8	4.5	0.6

2-4. 산업대분류별 구성비(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 2010 >														
계	100.0	11.7	2.3	6.7	2.7	1.4	4.1	10.8	6.6	6.5	14.0	13.4	15.0	4.8
부	100.0	15.0	4.5	7.1	4.3	1.2	8.1	1.8	10.3	3.4	27.4	4.5	2.0	10.3
모	100.0	11.6	2.3	6.7	2.7	1.4	4.1	10.9	6.5	6.5	13.9	13.5	15.1	4.8
< 2011 >														
계	100.0	9.7	2.1	6.4	2.5	1.0	4.7	10.0	8.0	5.7	13.6	15.8	16.0	4.5
부	100.0	14.6	3.8	7.4	5.8	0.9	8.0	1.5	10.0	3.8	27.9	8.3	1.8	6.1
모	100.0	9.6	2.1	6.4	2.5	1.0	4.6	10.1	8.0	5.7	13.4	15.9	16.2	4.5
< 2012 >														
계	100.0	13.0	1.8	6.5	2.6	1.0	4.5	10.3	6.8	6.3	14.0	12.9	16.0	4.4
부	100.0	15.4	3.3	6.5	5.8	1.3	7.2	1.2	12.0	2.9	29.0	4.5	3.0	7.9
모	100.0	13.0	1.8	6.5	2.5	1.0	4.5	10.4	6.7	6.3	13.9	13.0	16.1	4.3
< 2013 >														
계	100.0	10.7	1.6	6.1	2.4	1.1	4.4	10.2	9.9	5.8	14.5	13.2	15.9	4.3
부	100.0	13.0	3.3	6.0	5.3	1.2	8.1	1.9	13.8	4.5	30.9	5.1	1.7	5.1
모	100.0	10.7	1.6	6.1	2.4	1.1	4.4	10.3	9.8	5.8	14.3	13.3	16.0	4.2
< 2014 >														
계	100.0	10.9	1.5	6.5	2.5	1.2	4.7	9.8	9.8	5.7	14.1	13.0	16.5	3.8
부	100.0	17.2	3.2	6.2	4.3	0.7	7.0	3.2	11.9	4.2	28.8	3.8	3.3	6.3
모	100.0	10.8	1.5	6.5	2.5	1.2	4.7	9.9	9.8	5.8	13.9	13.1	16.6	3.8
< 2015 >														
계	100.0	13.3	1.6	7.2	2.5	0.9	4.7	9.7	8.0	5.3	13.9	12.6	16.6	3.6
부	100.0	20.7	4.1	6.9	3.3	1.9	7.9	2.2	8.9	3.9	26.8	5.2	3.0	5.4
모	100.0	13.2	1.6	7.2	2.5	0.9	4.6	9.8	8.0	5.3	13.7	12.7	16.8	3.6
< 2016 >														
계	100.0	10.9	1.5	7.4	2.5	1.0	4.6	9.8	10.2	5.4	13.8	12.6	16.8	3.5
부	100.0	18.4	6.7	6.7	3.7	1.1	6.8	2.3	11.4	4.1	25.8	3.6	2.7	6.8
모	100.0	10.8	1.4	7.4	2.5	1.0	4.5	10.0	10.2	5.4	13.6	12.8	17.1	3.4
< 2017 >														
계	100.0	12.5	1.5	7.8	2.4	1.1	4.7	9.2	9.5	5.2	14.1	12.0	16.5	3.4
부	100.0	22.5	3.7	11.5	3.1	2.1	6.2	3.7	16.0	3.7	18.1	2.8	2.0	4.5
모	100.0	12.1	1.4	7.7	2.4	1.0	4.6	9.4	9.3	5.2	13.9	12.3	17.1	3.4
< 2018 >														
계	100.0	11.1	1.6	8.2	2.5	1.1	4.7	8.6	11.4	4.9	13.7	11.3	16.8	3.9
부	100.0	20.3	4.7	11.2	3.5	1.9	7.1	3.2	16.7	4.0	17.3	3.0	2.3	4.6
모	100.0	10.6	1.4	8.1	2.5	1.1	4.6	8.8	11.1	5.0	13.5	11.8	17.6	3.9
< 2019 ^P >														
계	100.0	10.8	1.6	8.7	2.5	1.1	4.7	7.9	11.5	4.7	13.9	10.6	17.2	4.6
부	100.0	20.7	3.2	11.6	3.5	1.7	6.7	3.3	14.2	4.3	18.8	3.8	2.1	6.1
모	100.0	10.2	1.5	8.5	2.5	1.1	4.6	8.2	11.4	4.8	13.6	11.1	18.2	4.5

* 기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2010	83.3	60.1	23.2
2011	85.7	61.3	24.3
2012	88.0	62.6	25.4
2013	90.0	63.8	26.2
2014	91.5	64.7	26.8
2015	93.2	65.4	27.8
2016	95.2	66.5	28.7
2017	96.5	66.7	29.7
2018	102.6	70.5	32.1
2019 ^P	105.4	71.7	33.7

3-1.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출생아 수
2010	391,546	282,652	108,894	470,171
2011	403,687	289,106	114,581	471,265
2012	426,285	303,308	122,977	484,550
2013	392,797	278,528	114,269	436,455
2014	398,366	281,800	116,566	435,435
2015	408,756	286,903	121,853	438,420
2016	386,701	270,056	116,645	406,243
2017	345,147	238,728	106,419	357,771
2018	335,241	230,431	104,810	326,822
2019 ^P	319,101	217,144	101,957	302,676

3-2. 연령별 구성비(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0 >					
계	100.0	20.6	48.9	25.2	5.3
부	100.0	15.4	47.9	29.9	6.9
모	100.0	34.1	51.5	13.2	1.2
< 2011 >					
계	100.0	19.4	49.2	25.5	6.0
부	100.0	14.6	47.6	30.0	7.8
모	100.0	31.3	53.2	14.0	1.5
< 2012 >					
계	100.0	17.2	50.4	26.0	6.5
부	100.0	12.9	48.3	30.3	8.5
모	100.0	27.7	55.5	15.2	1.6
< 2013 >					
계	100.0	15.0	50.8	27.0	7.1
부	100.0	11.3	48.2	31.2	9.3
모	100.0	24.1	57.3	16.9	1.8
< 2014 >					
계	100.0	13.7	50.8	27.9	7.6
부	100.0	10.2	48.0	31.8	9.9
모	100.0	22.1	57.5	18.4	2.0
< 2015 >					
계	100.0	13.5	48.7	29.7	8.1
부	100.0	10.0	46.0	33.4	10.6
모	100.0	21.7	55.3	20.7	2.3
< 2016 >					
계	100.0	13.0	46.5	31.8	8.7
부	100.0	9.6	43.5	35.6	11.3
모	100.0	20.9	53.5	23.1	2.6
< 2017 >					
계	100.0	12.7	43.4	34.4	9.5
부	100.0	9.2	40.2	38.1	12.5
모	100.0	20.4	50.7	25.9	3.0
< 2018 >					
계	100.0	12.4	41.4	36.1	10.1
부	100.0	9.3	37.9	39.6	13.2
모	100.0	19.1	49.2	28.3	3.4
< 2019 ^P >					
계	100.0	11.6	40.5	36.8	11.1
부	100.0	8.8	36.4	40.5	14.4
모	100.0	17.7	49.2	29.1	4.0

3-3.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0 >						
계	100.0	46.9	18.9	24.8	8.8	0.7
부	100.0	44.1	20.9	25.6	8.8	0.7
모	100.0	54.2	13.6	22.7	8.8	0.7
< 2011 >						
계	100.0	47.7	18.8	24.4	8.8	0.2
부	100.0	45.1	20.9	25.0	8.8	0.2
모	100.0	54.2	13.7	22.9	8.9	0.3
< 2012 >						
계	100.0	48.3	18.8	24.0	8.9	0.1
부	100.0	45.4	20.8	24.7	9.0	0.1
모	100.0	55.4	13.8	22.2	8.4	0.2
< 2013 >						
계	100.0	49.1	18.7	23.1	8.9	0.3
부	100.0	46.1	20.8	23.8	9.1	0.2
모	100.0	56.4	13.5	21.4	8.3	0.4
< 2014 >						
계	100.0	49.3	18.7	23.0	8.8	0.2
부	100.0	46.3	20.7	23.7	9.2	0.1
모	100.0	56.4	13.9	21.4	8.1	0.3
< 2015 >						
계	100.0	48.9	18.4	23.1	9.3	0.2
부	100.0	46.0	20.3	23.9	9.7	0.1
모	100.0	55.9	13.9	21.4	8.5	0.3
< 2016 >						
계	100.0	48.8	18.1	22.9	10.1	0.1
부	100.0	45.8	20.0	23.7	10.5	0.1
모	100.0	55.6	13.9	21.0	9.3	0.2
< 2017 >						
계	100.0	48.8	17.8	22.6	10.7	0.2
부	100.0	46.0	19.5	23.3	11.1	0.2
모	100.0	55.1	13.8	21.1	9.8	0.2
< 2018 >						
계	100.0	47.8	17.3	23.2	11.6	0.1
부	100.0	45.1	19.0	23.9	12.0	0.1
모	100.0	53.9	13.5	21.7	10.8	0.1
< 2019 ^P >						
계	100.0	47.1	16.6	21.9	11.8	2.5
부	100.0	44.6	18.0	22.4	12.0	2.9
모	100.0	52.5	13.7	20.8	11.4	1.6

3-4. 산업대분류별 구성비(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 2010 >														
계	100.0	24.4	6.7	10.7	3.3	1.2	5.1	5.6	10.0	3.7	8.3	6.7	7.2	7.0
부	100.0	29.6	8.0	11.4	3.7	1.2	5.6	4.1	11.0	3.4	7.6	3.7	3.2	7.5
모	100.0	11.0	3.6	8.6	2.2	1.2	3.8	9.2	7.5	4.6	10.3	14.6	17.8	5.6
< 2011 >														
계	100.0	23.2	6.4	10.3	3.2	1.3	5.3	5.4	10.9	3.7	8.0	8.4	7.5	6.5
부	100.0	28.5	7.6	11.0	3.6	1.3	5.7	4.0	11.9	3.4	7.2	5.5	3.2	7.0
모	100.0	9.9	3.3	8.4	2.2	1.1	4.2	9.0	8.3	4.4	10.0	15.8	18.3	5.1
< 2012 >														
계	100.0	27.1	6.1	10.6	3.1	1.3	5.1	5.6	9.1	4.0	8.1	6.4	7.5	6.2
부	100.0	32.9	7.3	11.4	3.4	1.3	5.6	4.1	9.9	3.6	7.2	3.5	3.2	6.6
모	100.0	12.8	3.0	8.6	2.3	1.1	3.9	9.1	7.2	4.9	10.4	13.7	18.0	5.0
< 2013 >														
계	100.0	25.2	5.8	10.3	3.1	1.4	5.3	5.6	11.5	3.8	8.2	6.4	7.5	6.1
부	100.0	31.0	7.0	11.1	3.4	1.5	5.8	4.1	12.2	3.5	7.2	3.4	3.3	6.5
모	100.0	11.2	2.8	8.2	2.2	1.3	3.9	9.0	9.6	4.7	10.7	13.6	17.7	5.0
< 2014 >														
계	100.0	25.6	5.5	10.4	2.9	1.6	5.2	5.6	11.5	4.0	8.0	6.2	7.5	5.9
부	100.0	31.4	6.7	11.2	3.2	1.7	5.6	4.2	12.2	3.6	7.0	3.4	3.4	6.5
모	100.0	11.6	2.7	8.6	2.2	1.5	4.1	9.0	9.7	4.9	10.5	13.2	17.6	4.5
< 2015 >														
계	100.0	26.9	5.3	11.0	2.9	1.7	5.3	5.5	9.6	4.0	8.1	6.1	7.6	5.9
부	100.0	32.7	6.5	11.7	3.1	1.7	5.9	4.1	10.1	3.8	7.1	3.3	3.4	6.5
모	100.0	13.4	2.7	9.4	2.2	1.5	4.1	8.7	8.3	4.6	10.6	12.6	17.5	4.5
< 2016 >														
계	100.0	24.9	5.3	11.2	2.9	2.0	5.3	5.6	11.3	3.7	8.3	6.2	7.7	5.7
부	100.0	30.6	6.4	12.0	3.1	2.1	5.8	4.2	11.9	3.3	7.3	3.4	3.6	6.3
모	100.0	11.7	2.6	9.5	2.3	1.9	4.0	8.8	9.9	4.7	10.5	12.5	17.4	4.3
< 2017 >														
계	100.0	25.4	5.2	11.6	2.8	2.2	5.2	5.5	10.2	4.0	8.6	6.2	7.7	5.3
부	100.0	31.1	6.4	12.3	3.1	2.3	5.6	4.3	10.8	3.7	7.6	3.5	3.6	5.7
모	100.0	12.5	2.5	10.1	2.2	2.2	4.1	8.4	9.0	4.7	10.9	12.1	17.1	4.4
< 2018 >														
계	100.0	23.1	5.3	11.9	3.0	2.5	5.0	5.3	11.8	4.0	8.2	6.2	7.7	5.8
부	100.0	28.5	6.4	12.6	3.3	2.5	5.5	4.2	12.4	3.7	7.2	3.6	3.6	6.3
모	100.0	11.5	2.8	10.5	2.3	2.5	3.9	7.8	10.5	4.5	10.5	11.7	16.8	4.8
< 2019 ^p >														
계	100.0	21.6	5.1	11.7	3.0	2.5	4.9	5.3	11.9	3.8	8.6	6.0	7.8	8.1
부	100.0	26.6	6.2	12.2	3.3	2.4	5.4	4.2	12.5	3.6	7.5	3.6	3.5	8.9
모	100.0	11.0	2.7	10.5	2.2	2.5	4.0	7.5	10.5	4.2	10.9	11.1	16.8	6.2

* 기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4.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계	부	모
2010	11.5	0.2	41.0
2011	13.6	0.2	47.4
2012	14.6	0.2	50.2
2013	15.8	0.3	53.7
2014	16.8	0.3	56.8
2015	17.9	0.4	59.3
2016	18.6	0.5	60.5
2017	19.9	1.2	62.0
2018	20.7	1.5	62.9
2019 ^P	21.6	1.8	63.6

4-1.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0 >					
계	11.5	20.9	12.0	5.1	1.9
부	0.2	0.1	0.2	0.2	0.2
모	41.0	45.2	40.5	33.8	27.1
< 2011 >					
계	13.6	23.6	14.7	6.5	2.5
부	0.2	0.2	0.2	0.3	0.3
모	47.4	51.2	47.5	40.0	30.7
< 2012 >					
계	14.6	25.4	16.3	7.4	2.6
부	0.2	0.2	0.2	0.3	0.2
모	50.2	54.5	50.7	42.2	33.8
< 2013 >					
계	15.8	27.4	18.0	8.6	3.0
부	0.3	0.2	0.2	0.3	0.3
모	53.7	58.5	54.5	45.8	38.1
< 2014 >					
계	16.8	29.5	19.4	9.7	3.2
부	0.3	0.2	0.3	0.3	0.3
모	56.8	62.3	58.0	48.6	38.1
< 2015 >					
계	17.9	31.6	20.8	10.9	3.9
부	0.4	0.3	0.4	0.4	0.4
모	59.3	65.6	60.7	51.0	42.2
< 2016 >					
계	18.6	32.2	22.0	11.9	4.6
부	0.5	0.5	0.5	0.5	0.5
모	60.5	66.1	62.4	52.7	45.1
< 2017 >					
계	19.9	34.3	23.9	13.7	5.1
부	1.2	1.2	1.2	1.2	1.0
모	62.0	68.0	64.2	55.3	43.6
< 2018 >					
계	20.7	33.7	25.4	14.9	5.9
부	1.5	1.4	1.6	1.5	1.3
모	62.9	68.4	65.9	56.0	45.2
< 2019 ^P >					
계	21.6	34.8	27.1	15.7	7.0
부	1.8	2.2	1.9	1.9	1.6
모	63.6	69.2	67.0	56.7	48.0

4-2.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0 >						
계	11.5	16.1	6.3	8.2	8.1	8.5
부	0.2	0.2	0.1	0.1	0.2	0.1
모	41.0	49.6	30.7	31.8	28.6	30.3
< 2011 >						
계	13.6	18.4	7.9	10.2	9.2	16.8
부	0.2	0.3	0.1	0.2	0.2	0.4
모	47.4	56.4	37.8	37.8	31.7	43.8
< 2012 >						
계	14.6	20.2	9.0	10.2	8.4	14.8
부	0.2	0.3	0.1	0.1	0.2	-
모	50.2	60.3	42.0	37.8	30.0	41.7
< 2013 >						
계	15.8	21.7	10.1	10.7	8.1	24.2
부	0.3	0.4	0.1	0.2	0.2	-
모	53.7	64.3	47.5	39.4	29.1	48.4
< 2014 >						
계	16.8	23.1	11.5	11.4	7.7	16.8
부	0.3	0.5	0.2	0.2	0.2	-
모	56.8	67.9	52.3	41.5	28.3	39.2
< 2015 >						
계	17.9	24.5	13.2	12.0	7.7	21.1
부	0.4	0.5	0.3	0.2	0.2	0.9
모	59.3	70.8	57.4	43.1	27.7	45.1
< 2016 >						
계	18.6	25.6	14.0	12.3	7.2	19.2
부	0.5	0.8	0.4	0.3	0.3	2.2
모	60.5	72.9	59.4	43.8	25.3	44.1
< 2017 >						
계	19.9	27.2	15.9	13.5	6.9	10.9
부	1.2	1.9	0.6	0.5	0.4	3.0
모	62.0	74.7	64.5	45.6	23.3	26.9
< 2018 >						
계	20.7	28.4	17.4	14.2	6.7	19.2
부	1.5	2.4	0.9	0.6	0.4	1.4
모	62.9	76.2	68.3	46.9	21.9	46.1
< 2019 ^P >						
계	21.6	29.0	19.7	16.2	8.1	5.7
부	1.8	2.9	1.4	0.9	0.6	0.6
모	63.6	76.1	71.2	51.1	25.1	25.5

4-3. 산업대분류별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 2010 >														
계	11.5	5.5	3.9	7.2	9.4	12.8	9.3	22.5	7.6	20.1	19.4	23.1	23.9	8.0
부	0.2	0.1	0.1	0.1	0.2	0.2	0.3	0.1	0.2	0.2	0.6	0.2	0.1	0.2
모	41.0	43.6	26.1	31.8	49.6	47.2	43.7	48.6	35.8	58.5	55.4	37.9	34.8	35.2
< 2011 >														
계	13.6	5.7	4.5	8.5	10.8	11.3	12.0	25.0	10.0	20.8	23.2	25.4	29.0	9.5
부	0.2	0.1	0.1	0.2	0.4	0.2	0.3	0.1	0.2	0.3	0.9	0.3	0.1	0.2
모	47.4	45.9	30.4	36.2	53.4	45.2	51.8	53.4	45.3	61.1	63.7	47.4	42.0	41.7
< 2012 >														
계	14.6	7.0	4.4	9.1	12.1	11.3	13.0	27.0	10.9	23.0	25.3	29.5	31.4	10.4
부	0.2	0.1	0.1	0.1	0.4	0.2	0.3	0.1	0.3	0.2	0.9	0.3	0.2	0.3
모	50.2	50.9	30.4	38.1	56.1	43.3	57.1	57.3	46.6	64.4	67.0	47.7	45.0	43.5
< 2013 >														
계	15.8	6.7	4.5	9.4	12.6	11.7	13.2	29.0	13.6	23.8	28.0	32.6	33.6	11.1
부	0.3	0.1	0.1	0.1	0.4	0.2	0.4	0.1	0.3	0.4	1.2	0.4	0.1	0.2
모	53.7	51.2	30.7	39.8	57.5	43.1	59.4	61.4	55.3	65.4	72.0	52.4	48.7	45.7
< 2014 >														
계	16.8	7.2	4.6	10.5	14.3	12.1	15.3	29.4	14.4	24.3	29.7	35.1	36.8	11.0
부	0.3	0.2	0.1	0.2	0.4	0.1	0.4	0.2	0.3	0.4	1.3	0.3	0.3	0.3
모	56.8	52.8	31.5	43.0	63.6	44.5	65.1	62.6	57.2	66.8	75.3	56.5	53.9	48.1
< 2015 >														
계	17.9	8.8	5.5	11.7	15.5	10.1	15.8	31.8	15.1	23.7	30.7	37.1	38.9	11.0
부	0.4	0.2	0.2	0.2	0.4	0.4	0.5	0.2	0.3	0.4	1.4	0.6	0.3	0.3
모	59.3	58.2	35.8	45.6	65.2	36.6	67.5	67.1	57.5	69.0	76.9	59.8	56.7	47.8
< 2016 >														
계	18.6	8.2	5.5	12.2	16.1	9.0	16.1	32.5	16.8	27.0	31.2	38.0	40.3	11.5
부	0.5	0.3	0.6	0.3	0.6	0.3	0.6	0.3	0.5	0.6	1.9	0.6	0.4	0.6
모	60.5	55.8	33.3	47.1	65.4	31.2	68.5	68.5	62.2	70.5	78.2	61.7	59.3	48.6
< 2017 >														
계	19.9	9.8	5.9	13.4	17.0	9.6	18.2	33.2	18.5	25.9	32.5	38.7	42.5	13.0
부	1.2	0.8	0.7	1.1	1.2	1.1	1.3	1.0	1.7	1.2	2.7	0.9	0.6	0.9
모	62.0	60.0	35.9	47.5	67.1	29.3	70.2	69.9	63.8	69.7	79.4	63.4	62.1	48.4
< 2018 >														
계	20.7	9.9	6.1	14.2	17.5	9.1	19.2	33.1	20.0	25.8	34.5	38.0	45.1	14.0
부	1.5	1.1	1.1	1.3	1.6	1.1	1.9	1.1	2.0	1.6	3.6	1.2	1.0	1.1
모	62.9	58.3	31.7	48.4	68.7	26.7	73.4	71.0	66.8	70.0	80.9	63.2	65.8	51.8
< 2019 ^p >														
계	21.6	10.8	6.9	16.1	18.2	9.8	20.6	32.5	20.9	26.8	35.1	38.4	47.9	12.3
부	1.8	1.4	1.0	1.7	1.9	1.3	2.3	1.4	2.1	2.2	4.6	2.0	1.1	1.3
모	63.6	59.2	36.3	51.7	69.9	27.4	73.8	70.0	68.5	71.7	79.7	63.2	68.8	46.1

* 기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5.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단위(명)

출생연도	계	부	모
2010 ^P	19.6	1.8	17.8

* 전 기간: 2010년 출생아의 만 0~8세 기간

5-1. 출생아 부모 중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단위(명)

출생연도	계	부	모	출생아 수
2010 ^P	92,131	8,301	83,830	470,171

5-2. 육아휴직 분할사용 현황(전 기간)

단위(%)

출생연도	성별	계	1자녀 1회 휴직 (미분할)	1자녀 2회 휴직 (1회 분할)	1자녀 3회 이상 휴직 (2회 이상 분할)
2010 ^P	계	100.0	84.9	13.1	2.0
	부	100.0	95.3	4.3	0.4
	모	100.0	83.9	13.9	2.2

5-3.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

단위(%)

출생연도	성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0 ^P	계	100.0	59.6	5.4	4.6	4.1	4.2	3.9	8.4	5.8	3.9
	부	100.0	10.7	8.4	6.9	6.6	7.5	9.0	15.3	20.3	15.4
	모	100.0	63.9	5.2	4.4	3.9	3.9	3.5	7.8	4.6	2.9

6.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1)

단위(%)

출산연도	출산 전												출산일
	-360	-33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2011	42.8	42.4	42.1	41.7	41.0	39.1	37.5	36.2	35.2	34.4	33.5	32.7	32.0
2012	44.5	44.1	43.7	43.3	42.6	40.5	38.8	37.5	36.5	35.5	34.7	33.8	33.1
2013	45.6	45.2	44.8	44.4	43.6	41.6	39.8	38.6	37.5	36.5	35.7	34.8	34.1
2014	46.5	46.0	45.6	45.1	44.4	42.3	40.6	39.2	38.2	37.2	36.3	35.4	34.8
2015	47.3	46.9	46.4	46.0	45.3	43.3	41.5	40.2	39.2	38.2	37.3	36.5	35.9
2016	47.9	47.6	47.1	46.7	46.1	44.0	42.4	41.1	40.1	39.1	38.3	37.4	36.8
2017	49.0	48.7	48.3	47.9	47.3	45.3	43.6	42.4	41.4	40.4	39.5	38.8	38.1
2018 ^P	50.2	49.9	49.6	49.2	48.6	46.7	45.1	43.9	43.0	42.1	41.2	40.5	39.8
2019 ^P	51.8	51.5	51.2	50.9	50.3	48.4	46.9	45.7	44.8	43.9	43.1	42.3	41.7

6.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2)

단위(%)

출산 연도	출산 후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2011	31.7	31.5	30.9	30.8	30.8	30.9	31.1	31.2	31.4	31.5	31.6	31.7	31.8	31.7	30.6	30.3
2012	32.9	32.6	32.0	31.8	31.8	31.9	32.0	32.1	32.3	32.4	32.5	32.6	32.7	32.4	31.3	30.9
2013	33.9	33.6	32.9	32.8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7	33.4	32.2	31.8
2014	34.6	34.2	33.7	33.5	33.6	33.6	33.8	33.9	34.0	34.2	34.4	34.5	34.6	34.3	33.1	32.8
2015	35.7	35.4	35.0	34.9	35.0	35.1	35.3	35.4	35.6	35.8	36.0	36.1	36.3	36.0	34.8	34.6
2016	36.6	36.3	35.8	35.8	35.9	36.0	36.2	36.3	36.5	36.7	37.0	37.2	37.5	37.2	36.0	35.9
2017	37.9	37.7	37.2	37.2	37.3	37.5	37.6	37.8	38.0	38.2	38.5	38.7	38.9	38.7	37.6	37.5
2018 ^P	39.6	39.5	39.1	39.2	39.3	39.4	39.6	39.8	40.1	40.3	40.5	40.7	-	-	-	-
2019 ^P	-	-	-	-	-	-	-	-	-	-	-	-	-	-	-	-

Q1.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업주·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육아휴직 제도 >

(2019년 기준)

구 분	근로자	공무원
근 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대 상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공무원
자 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시 ·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 시
기 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	자녀 1명당 3년 이내(1년 이내 유급)
분할사용	1회 분할 가능	제한 없음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이 되는 자녀 연령 및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이 변화해 왔음

< 민간 >

자녀연령		근로기간	
'88. 4월	· 생후 1년 미만(母만 가능)	'01. 11월	· 재직기간 1년 이상
'95. 8월	· 생후 1년 미만(父도 가능)	'18. 5월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06. 3월	· 생후 3년 미만		
'10. 2월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4. 1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무원 >

자녀연령		근로기간
'95. 1월	· 생후 1년 미만(부모 모두 가능)	· 관련 제한규정 없음
'02. 1월	· 생후 3년 미만 · 임신 또는 출산시 가능(母)	
'07. 3월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1. 5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국가공무원법

○ 관련 급여 및 수당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화여 왔음

민간		공무원	
'01. 11월	· 육아휴직급여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월	· 육아휴직수당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2월	· 월 30만원	'03. 1월	· 월 30만원
'04. 2월	· 월 40만원	'04. 4월	· 월 40만원
'07. 4월	· 월 50만원	'07. 1월	· 월 50만원
'11. 1월	·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	'11. 1월	· 월봉금액의 40%(50~100만원)
'14. 10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15. 1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월봉급 100%, 상한 150만원)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 (1개월 → 3개월)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 (1개월 → 3개월)
'17. 1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7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9월	· 첫 3개월 통상임금 80% (70~150만원)	'17. 9월	· 첫 3개월 월봉급 80% (70~15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70~12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4개월 이후 월봉급 50% (70~12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Q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그 활용도는 무엇인가요?

- 총 6개의 지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지표 산식 및 활용도
①	전체 육아휴직자 수(시작일 기준)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규모 가늠
②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frac{t\text{년도출생아를대상으로}t\text{년도육아휴직을사용한사람}}{t\text{년도출생아수}} \times 100$ ☞ 출생아 대비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규모 가늠
③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frac{t\text{년도출생아를대상으로육아휴직대상조건을충족시키는사람}}{t\text{년도출생아수}} \times 100$ ☞ 출생아 대비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규모 가늠
④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frac{t\text{년도출생아를대상으로}t\text{년도육아휴직을사용한사람}}{t\text{년도출생아를대상으로육아휴직대상조건을충족시키는사람}} \times 100$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에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중 파악
⑤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frac{t\text{년도출생아를대상으로}(t\text{년} \sim t+9\text{년도})\text{육아휴직을사용한사람}}{t\text{년도출생아수}} \times 100$ ☞ 출생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전체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 규모 가늠
⑥	출산 전·후母的 취업비중
	연도별 출산 母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년 기간 중 30일 간격 각 기준일에 행정자료상 취업(상용/임시/사업소득) 기록이 있는 경우를 집계 ☞ 출산시기를 전후하여 여성의 취업비중 변화 파악

Q3. '전체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당해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를 뜻함

(예시)

유형	육아휴직 사용 기간	'19년 육아휴직자 포함여부
A	'18년 12월 ~ '19년 11월	포함 ×
B	'19년 1월 ~ '19년 3월, '19년 9월 ~ '20년 1월	1회 포함
C	'18년 12월 ~ '19년 3월, '19년 9월 ~ '20년 1월	1회 포함

- 당해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통계로 집계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자료 상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이 잦고 적기에 수정이 되지 않아 부정확하기 때문임

Q4.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지표와 같이 육아휴직자 수나 대상자 수를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출산이 심해지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 정도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자 규모가 적어질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생아에 대한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나 대상자 수를 파악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육아휴직자 수가 곧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수가 됨

* '전체 육아휴직자 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 휴직 중인 사람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시작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자로 국한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Q5. 육아휴직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 육아휴직제도 상의 자녀 연령 및 근로기간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육아휴직이 가능함
-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는 근로기간 기준과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예시)

유형	특성	‘19년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A	‘18년 12월 자녀 출산, ‘19년 중 계속 근로	×
B	‘19년 1월 자녀 출산, ‘19년 4~12월 근로	○
C	‘19년 9월 퇴사 후 무직, ‘19년 10월 자녀 출산	×
D (母)	‘19년 계속 근로, ‘19년 12월 1일 자녀 출산	×
E (父)	‘19년 계속 근로, ‘19년 12월 1일 자녀 출산	○

- (유형 A) ‘18년에 자녀를 출산하여 ‘19년 출생아 대상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에는 제외
- (유형 B) ‘19년 1월 자녀 출산 후, 근로기간 등 ‘19년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
- (유형 C) 자녀 출산 전 퇴사자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상자에서 제외
- (유형 D) 계속 근로자이며 연도 중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19년 중에는 출산휴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대상자에서 제외
- (유형 E) 유형 D와 같은 사례이나,父의 경우는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휴가 여부 상관없이 육아휴직 대상자에 포함

< 출산 휴가 관련 규정 >

(민간)

부(父)		모(母)	
‘08. 6월	· 신청하는 경우 3일	‘53. 8월	출산 전후 60일
‘14. 1월	· 신청하는 경우 5일 이내 3일 이상	‘61. 12월	출산 전후 60일 (산후 30일)
‘20. 1월	· 신청하는 경우 10일	‘01. 11월	출산 전후 90일 (산후 45일)
		‘14. 7월	다태아 120일 (산후 60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공무원)

부(父)		모(母)	
‘79. 10월	· 신청하는 경우 1일	‘63. 6월	출산 전후 60일
‘04. 6월	· 신청하는 경우 3일	‘01. 10월	출산 전후 90일
‘10. 7월	· 신청하는 경우 5일	‘06. 11월	출산 전후 90일 (산후 45일)
‘18. 7월	· 신청하는 경우 10일	‘14. 7월	다태아 120일 (산후 60일)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Q6. 육아휴직 통계에서 제공하는 각 지표들의 특성 분석에서 기준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성 분석의 기준시점은 개별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일을 기본*으로 하고, 육아휴직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출산일 또는 당해연도 최종근무일을 기준으로 함

* 아래 지표 2~4의 연령별 분석은 통일성을 위하여 자녀 출산일을 기준시점으로 함

<지표별 기준시점 >

지표	특성분석	기준시점
1. 전체 육아휴직자수	연령별 분석	육아휴직일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
	종사 산업별 분석	"
2.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연령별 분석	자녀 출산일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육아휴직일
	종사 산업별 분석	"
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연령별 분석	자녀 출산일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육아휴직일 또는 최종 근무일
	종사 산업별 분석	육아휴직일 또는 최종 근무일
4.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연령별 분석	자녀 출산일
	소속 기업체 규모별 분석	육아휴직일 또는 최종근무일
	종사 산업별 분석	육아휴직일 또는 최종근무일
5. 출생아 100명당 전기간 육아휴직자 수	자녀 연령별 분석	육아휴직일
	육아휴직 분할사용 분석	-
6.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	취업비중	출산일 ± (30의 배수)

Q7. 육아휴직통계를 잠·확정 체계로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통계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자료, 건강보험 납입 고지 유예자 자료로 육아휴직자를 파악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시점과의 시차, 관련 행정자료 입수시기*, 통계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1년 시차)로 공표하기로 함

* 고용보험자료는 매월 2~3개월의 시차로 입수, 건강보험자료는 연 1회 9개월의 시차로 입수

< 잠정·확정 공표 체계 >

	2019년 육아휴직자 자료	
	잠정치	확정치
공표시점	2020년 12월	2021년 12월
활용 행정자료	(고용보험) '20년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시작일이 '19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19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시작일이 '19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고용보험) '21년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시작일이 '19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0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시작일이 '19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한계	고용보험 자료 중 '20.10월~21.12월에 신고한 '19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건강보험 자료 중 '20. 1월 이후 신고한 '19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고용보험 자료 중 '21.10월~12월에 신고한 '19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건강보험 자료 중 '21. 1월 이후 신고한 '19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Q8. 육아휴직통계가 육아휴직 실태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나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점과의 시차로 인하여 잠정치와 확정치 모두 육아휴직 실태보다 과소하게 집계될 수밖에 없음(Q7 참조)
- 또한, 군인 등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실보다 과소하게 집계됨

Q9. 육아휴직과 관련된 통계는 무엇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명	육아휴직통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통계종류	가공	조사(표본)	보고
작성연도*	2010년 이후	2017년 이후	2012년 이후
작성주기	1년	1년	월
활용자료/ 표본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11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5,000개 사업체 표본조사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보험
포괄범위	민간 및 공공 (군인 제외)	민간 (산업분류 A.농림어업 및 O.공공행정 제외)	민간 (고용보험 가입자)
집계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기준

* 작성연도: 육아휴직자 수 관련 통계 작성 기준

Q10. 외국의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OECD에서 각 국가의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음
 -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이나,
 - 당해연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뿐만이 아니라 대상 자녀 연령을 충족하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남/여 각각)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
- 국가별 세부 기준(대상 자녀 나이, 분할사용 여부, 포괄범위, 유급/무급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수집한 자료로 국가 간 비교 시 유의 필요

< OECD 육아휴직 통계 (2016년 기준) >

(단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

국가	남	여	국가	남	여
노르웨이	96.1	149.1	오스트리아	6.1	140.6
뉴질랜드	0.5	59.6	이탈리아	11.1	54.1
덴마크	49.3	134.4	체코	4.6	238.8
독일	35.0	93.7	캐나다	9.0	57.3
룩셈부르크	19.1	58.3	포르투갈	87.4	107.8
리투아니아	29.3	106.2	폴란드	1.1	102.4
스웨덴	314.1	380.0	프랑스	2.4	53.3
아이슬란드	131.0	158.9	핀란드	50.9	145.8
에스토니아	18.6	204.3	호주	0.2	55.1